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87호 【루계 제24965호】 주체104(2015)년 7월 6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총공격전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키자

자랑찬 연구성과를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리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 수십개 대상들에 달려나가 과학연구활동 활발히 전개

과학연구부문에서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경제발전과 국방력강화,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많이 내놓을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과 일군들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달려나가 과학연구활동을 힘있게 벌려 련이어 자랑찬 성과들을 거두고있다.

이곳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인민군대의 어느 한 양어장에 양어를 과학화할수 있게 물처리장치와 수질종합측정장치를 도입하여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것을 비롯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훌륭한 과학연구성과들을 이룩함으로써 당창건 일흔돐을 앞두고 온 나라를 흥성이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대학에서 거두고있는 자랑찬 성과들은 지난해말 김책공업종합대학은 명실공히 실질적인 과학기술연구성과로 당의 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는 과학기술핵심력량, 나라의 경제발전을 힘있게 이끌어나가는 기관차라고 말할수 있다고 또다시 값높이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에 기어이 보답하려는 이곳 교원, 연구사들과 일군들의 불타는 충정과 열정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는 올해 정초부터 교원, 연구사들이 당에서 중시하는 대상들을 비롯한 수십개의 중요공장, 기업소들에 나가 긴급하고 어려운 과학연구과제들을 스스로 맡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적극 짜고들었다.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과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자자구구 학습한데 기초하여 당의 숭고한 구상과 의도에 맞게 과학연구목표를 통이 크게 세웠다.

대학에서는 뜻깊은 당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어머니당에 드리는 자랑찬 선물을 마련해 갈 불같은 일념을 안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유능한 교원, 연구사들을 선발하여 강력한 연구집단을 뭇고 그들이 빠른 시일내에 과제들을 수행해나가도록 적극 이끌어주었다.

특히 대학의 책임일군들은 직접 현지를 먼저 밟아보면서 현실에서 절실히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작전을 세우며 유능한 교원, 연구사들로 연구집단을 합리적으로 무어주는 등 과학연구사업에서 제기되는 사소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빈틈없는 대책을 세워주면서 지도사업을 방법론있게, 활력있게 진행해나가고있다. 또한 연구사업 진척정형에 대하여 매주 총화사업을 진행하고 계획했던 날자까지 과학연구과제들을 무조건 수행하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자동화공학부, 로보트공학연구소, 공업경제관리학부, 열공학부, 전기공학부를 비롯한 대학의 연구집단은 자기들이 맡은 평양시버섯공장현대화과제를 훌륭히 결속하고 지난 1월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커다란 만족을 드리고 감사를 받아안는 영광을 지녔다.

정보기술연구소, 전기공학부, 전자공학부, 정보과학기술대학, 열공학부를 비롯한 대학의 연구집단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 후대사랑이 깃든 류경구강병원과 옥류아동병원의 의료봉사사업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인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어주어 또다시 지난 1월 경애하는 원수님의 감사를 받아안게 되였다.

지난 2월에는 반도체연구소에서 청천강계단식발전소 발전기보호용온도수감소자를 개발하여 생산도입하고 황해남도물길공사장에 달려나간 광업공학부와 자원탐측공학부 연구사들이 발파와 탐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였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 나간 대학의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은 습식제진기 작업특성개선, 분쇄용뿔의 수명제고, 미분화계통 생산능력제고, 철심유도로도입 등 근 30건의 가치있는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그 수행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나라의 전력생산에 기여하였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서 대학의 연구집단은 태양열과 풍력을 비롯한 자연에네르기를 리용하여 전기문제, 뗄감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어려운 조건들을 극복하면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메탄가스발생장치를 도입하고 풍력발전기를 제작설치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이곳에 희한한 새 풍경을 펼쳐놓을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기계과학기술대학, 자동화공학부, 전기공학부, 공업경제관리학부, 열공학부, 금속공학부를 비롯한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에 참가하여 콩우유생산공정과 영양암가루생산공정, 남새가루생산공정의 자동화, 무인화와 공장통합생산관리체계, 전기, 물, 증기관리체계, 공장경영정보체계, 물소독체계확립을 비롯한 10여개의 과제를 맡아안았다. 이들은 콩우유생산설비, 영양암가루생산설비 등 수십종의 설비들을 우리 식으로 새롭게 창안설계하고 여러 공장들에 나가 기술지도를 잘 진행하여 지금까지 수십대의 설비들을 제작완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공장의 통합생산관리체계와 공정자동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준비를 완성하고 근적외선분석기, 수자식폐하계를 비롯한 귀중한 측정설비들을 자체의 기술로 개발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다그쳐나가고있다.

사리원대성타올공장현대화에 참가한 열공학부, 자동화공학부, 기계과학기술대학에서는 타올필건조기를 우리 식으로 개조하고 물연화기를 설계제작하여 생산에 진입시켰으며 타올직기의 CNC화와 공장전반의 통합생산관리체계를 완성하고 무늬화상에 기초한 우리 식의 새로운 타올문양설계의 콤퓨터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심화시켜 문양설계를 짧은 시간에 할수 있는 새 기술을 완성하였다.

과학기술전당건설장에 달려나간 기계과학기술대학, 정보과학기술대학, 자원탐측공학부, 광업공학부, 금속공학부, 선박해양공학부를 비롯한 대학의 강력한 연구집단은 여러 부문 전시구역학술안을 현대적으로 작성하고있으며 수십건의 전시품을 새롭게 착상설계하고 제작을 추진하는 등 많은 과학연구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또한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는 사동구역 장천고급중학교에 풍력-태양전지발전체계를 우리 식으로 새롭게 구축하였다. 학교에 설치한 풍력발전기는 발전기의 모든 장치들의 설계로부터 부분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것으로 완전히 국산화한것이다.

옥류아동병원의 파들호상간화상협의진단체계확립사업과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열간압연공정현대화사업을 비롯한 나라의 수십개 중요대상들마다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과 일군들의 피타는 탐구와 애국헌신의 자욱이 자랑스럽게 찍혀져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뜻깊은 올해에 련이어 이룩하고있는 자랑찬 성과들은 지금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를 위해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이 들어가지 않은 단위가 없는것 같다고, 최근에 그 어느 단위에서나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을 찾고있는데 과학기술강국건설에서 대학이 큰 역할을 하고있다고 못내 만족해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리며 훌륭한 과학연구성과를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려는 이곳 교원, 연구사들과 일군들의 불타는 충정과 애국헌신의 빛나는 결정체이다.

당창건 일흔돐까지 결의한 과학연구과제들을 무조건 끌내고야말 신심과 열정에 넘쳐 사색과 탐구의 낮과 밤을 이어가고있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의 기세는 지금 하늘에 닿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가슴에 소중히 간직하고 애국충정으로 불타는 심장으로 당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과학과 기술로써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이런 개척의 대오를 조국과 인민은 미덥게 지켜보고있다.

본사기자 김명훈

당의 사랑과 믿음을 간직하고 온실남새 생산의 전형단위로서의 영예를 빛내여나가자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농업근로자들의 궐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농업근로자들의 궐기모임이 5일에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김수길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관계부문, 농장일군들, 농장원들이 참가하였다.

농장초급당비서 리승일의 보고에 이어 판리위원장 김명연, 초급청년동맹위원장 곽철성, 분조장 최영희가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난 6월말 사회주의농촌문화건설의 본보기, 기준으로 천지개벽된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찾아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농장원들과 평양시안의 일군들, 근로자들이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불과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농장의 면모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완전히 일신시키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매우 만족해하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기 위해 수십정보의 남새온실들을 새로 건설하고 남새생산을 늘일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한데 대하여 치하하시고 농장관리운영과 경영활동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볼수록 멋있는 농장도시, 도시사람들도 부러워할 희한한 농장도시를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대해같은 사랑과 은정에 충정다해 보답해갈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국도처에 마련해놓은 축산기지와 양어기지, 온실과 버섯생산기지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크나큰 긍지와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한결같이 떨쳐나설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농장의 전체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정신도덕적풍모와 남새생산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전국의 앞장에 설것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가슴깊이 새기고 남새온실들에 대한 판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모든 포전들에서 언제나 풍요한 남새작황을 안아옴으로써 여러가지 남새를 수도시민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이와 함께 남새생산의 과학화, 집약화수준을 높일뿐아니라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우량품종, 다수확품종의 남새들을 널리 재배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농업과학기술보급실에 꾸려놓은 도서실, 전자열람실, 기술학습실운영을 짜고들어 진행하여 모든 농장원들을 남새박사, 농산박사로 준비시킬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김정일애국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당의 뜨거운 은정속에 마련된 살림집들과 공공건물, 시설물들을 비롯한 농장의 모든 재부를 자기의 살붙이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잘 관리해나갈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소재지마을을 기준으로 하여 농장의 모든 마을들을 훌륭히 꾸려 농장원들이 보다 문명한 조건에서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두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남새와 알곡을 비롯한 농업생산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킴으로써 10월의 대축전장에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안고 떳떳이 들어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청춘다리건설공사 본격적인 단계에서 추진

백두산선군청년1호발전소건설장에서

백두산선군청년1호발전소건설장에서 언제건설과 동시에 여러 대상건설이 힘있게 추진되는 속에 청춘다리건설공사가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

1호언제아래에 건설되는 청춘다리는 길이 백수십m, 너비가 7m이상인 콩크리트다리로서 주변풍치에 잘 어울리게 특색있게 건설되게 된다. 지난 6월 7일에 10개의 다리기둥기초굴착작업이 우안과 좌안에서 시작된 이후 보름 남짓한 기간에 1 000㎥이상에 달하는 다리기둥콩크리트치기작업이 성과적으로 결속되였다. 양양된 그 기세로 만단의 준비를 갖춘 북부철길청년돌격대의 돌격대원들은 지난 5일 아침부터 근 50m에 달하는 우안다리의 보, 상판콩크리트치기를 위한 돌격전을 힘차게 들이대여 10시간만에 끝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1호발전소지구를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킬 높은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밑에 현장련합지휘부에서는 언제아래쪽에 위치한 나무다리대신 콩크리트다리를 건설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였다. 다리건설을 맡은 북부철길청년돌격대 지휘판들은 청춘다리를 선군시대의 창조물로 짧은 기간에 일떠세우기 위하여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합쳐나갔다. 다리건설을 처음 해보는 조건에서 시공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공정별계획을 과학적으로 세웠으며 다리보와 상판콩크리트치기를 조립식으로가 아니라 일체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전반적인 공사기일을 근 한달이나 앞당길수 있는 방도도 찾아내였다.

황해북도려단의 지휘판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이 다리기둥콩크리트치기를 맡아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좌안다리기둥을 맡은 1대대의 청년돌격대원들은 물량이 많아진 불리한 조건에서도 결사관철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여 5개의 기둥콩크리트치기를 높은 질적수준에서 짧은 기간에 해제끼였다. 2대대, 3대대, 4대대의 청년돌격대원들도 우안다리기둥콩크리트치기에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날마다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황해남도, 함경북도, 평안북도려단의 청년돌격대원들이 지휘부의 작전에 따라 보, 상판콩크리트치기에 필요한 철근가공과 조립, 휘틀제작과 조립전투를 립체적으로 벌리였다. 황해남도려단에서는 현장가까이에 철근가공장을 전개하고 돌격대원들이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기술지도를 적극 따라세웠다. 함경북도려단의 청년돌격대원들은 높이가 수m인 다리우에서 주보철근과 상판철근을 조립해야 하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창조적지혜를 합쳐 작업속도를 부단히 높여나갔다.

북부철길청년돌격대 지휘부에서는 이런 만단의 준비밑에 지난 5일 우안다리의 보, 상판콩크리트치기를 위한 각 려단별사회주의경쟁을 치밀하게 조직하였다.

함경북도려단의 청년돌격대원들이 집단의 전투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모래와 잔자갈을 충분히 마련한데 기초하여 타입전투에 진입한 이곳 돌격대원들은 혼합물다짐작업에서 질과 속도를 다같이 보장하여 려단이 맡은 한 경간의 콩크리트치기를 짧은 시간안에 끝내였다.

황해북도려단에서는 혼합물이 김과 운반, 다짐 등 모든 공정을 치차처럼 맞물려 돌격대원들의 충천한 기세가 그대로 높은 타입실적으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황해남도, 평안북도려단의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도 대대별, 소대별사회주의경쟁의 불길높이 타입속도를 높이기 위한 결사적인 투쟁을 벌려 계획된 시간을 앞당겨 맡겨진 경간의 콩크리트치기를 각각 끝내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불과 10시간만에 청춘다리건설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어렵다던 우안다리의 보, 상판콩크리트치기를 일체식으로 높은 질적수준에서 끝냄으로써 전반적인 다리공사를 당앞에 결의다진 날자까지 수행할수 있는 전망이 확고히 열리게 되였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중앙동물원 2단계개건공사장에 나래치는 결사관철의 정신

자연박물관골조공사 75%계선 돌파, 조류관건설 마감단계, 50여개 건설대상 성과 확대

중앙동물원 2단계개건공사장에서 성과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공사장적으로 건설규모가 대단히 방대한 자연박물관골조공사가 75%계선을 넘어서고 큰 규모의 조류관건설은 마감단계에 들어섰다. 이와 동시에 중앙동물원 본관과 선물동물2관, 맹금사와 명금사를 비롯한 50여개 건설대상공사가 립체적으로 추진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으로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여야 하겠습니다.》

건설지휘부일군들은 모든 시공단위들에서 맡은 공사를 일정계획대로 내밀도록 전투조직과 지휘를 능숙하게 하는 한편 현장들에서 대고조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도록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의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인민군장병들과 여러 단위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공사장마다에서 군민협동작전의 위력떨치며 기적과 위훈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조선인민군 백광훈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이 당이 결심하면 무조건 해내고야마는 백두산혁명강군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본관골조공사를 불이 번쩍나게 다그치고있다.

이곳 부대지휘관들은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처럼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웨치며 들끓는 전투현장에 몸을 잠그고 공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면서 시공력량과 건설기계를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면밀히 세워나가고있다. 이들의 뒤를 이어 부대군관, 군인들모두가 하나하나의 공정수행과정에 창조적사색을 기울이고 수많은 지구, 장비를 받아들이는 한편 10만여장의 블로크와 벽돌을 확보한 결과 5일현재 본관골조공사가 85%계선을 넘어서는 혁신이 창조되였다.

조선인민군 김동철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도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구호를 높이 들고 기술규정과 공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면서 선물동물2관과 맹금사, 명금사를 비롯한 여러 건설대상을 동시에 추진하고있다. 선물동물2관건설을 맡은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혼합물생산과 철근가공, 휘틀조립을 콩크리트치기에 확고히 앞세우면서 공사를 힘있게 내밀어 총골조공사량의 95%이상을 해제끼는 자랑찬 위훈을 창조하였다. 한편 합리적인 공법을 받아들여 80여대의 강판기둥을 짧은 기간에 세운 맹금사와 명금사건립을 맡은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도 기발한 착상으로 공사에 필요한 기공구와 지구들을 자체로 만들어 리용하면서 공사속도를 계속 높여나가고있다.

자연박물관건설을 맡은 대외건설지도국의 일군들은 직관선동, 방송선동을 리용한 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는 한편 건설기계와 륜전기재를 집중배치하고 그 가동률을 부쩍 높여 공사장에 새로운 시대정신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고있다.

지도국아래 양각, 송화, 금성, 릉라, 장산, 모란봉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혼합물보장을 위한 권양설비의 만가동보장에 힘을 넣으면서 철근과 휘틀조립시간을 최대로 줄이는 공법들을 련이어 탐구하고 실천에 받아들여 자연박물관골조공사속도를 끊임없이 높이고있다.

건물안팎이 특색있게 설계된 조류관건설을 맡은 류경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 일군들과 건설자들도 기발한 공법들을 받아들여 공사의 매 단계마다 승리의 신심드높이 전진하는 선군시대 건설자의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다.

대외건설지도국아래 다른 단위 건설자들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맡은 대상건설에서 완강한 돌격전을 벌려나가고있다.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달려나온 인민보안부와 국토환경보호성, 경공업성, 외교단사업총국, 국가품질감독위원회를 비롯한 성, 중앙기관의 일군들과 건설자들도 맡은 공사과제를 빠른 기간에 수행하기 위해 창조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고있다.

만수대창작사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 건축물의 조형화, 예술화를 보장하기 위한 전투도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발휘하며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공사를 불이 번쩍 나게 해제끼기 위해 헌신하고있는 군인들과 여러 단위 일군들과 전투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중앙동물원 2단계개건공사성과는 날이 갈수록 끊임없이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정경철

선군청년전위들의 고상한 풍모 높이 발휘

함경남도의 청년대학생들

함경남도의 대학생들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는 혁명적이고 고상한 미풍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 세대 청년들속에서뿐아니라 새 세대 청년들속에서도 만사람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소행이 많이 나오고있습니다.》

도안의 대학당조직들에서는 선군시대 청년대학생들의 고상한 미풍에 대하여 널리 소개하고 내세워주며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짜고들어 진행함으로써 아름다운 소행들이 끊임없이 발휘되도록 하고있다.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의 청년대학생들은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 달려나가 돌격대원들에게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들도 안겨주고 일도 같이하면서 그들을 위훈창조에로 고무추동하고있다. 성스러운 백두대지에 조국의 만년재부를 일떠세우는 돌격대원들과 숨결을 같이하며 대학생들은 완공의 그날을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하기 위한 불같은 열의에 충만되여있다. 서동현동무를 비롯한 청년대학생들은 원군사업과 영예군인, 전쟁로병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에도 자신들의 뜨거운 진정을 바쳐가고있다.

함흥수리동력대학의 청년대학생들은 어느 한 건물에 뜻하지 않게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서슴없이 뛰여들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셔내옴으로써 선군시대 청년대학생들의 불같은 충정과 숭고한 정신도덕적풍모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대학의 청년대학생들속에서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물심량면으로 지원하는 아름다운 소행들도 적극 발휘되고있다.

사회와 집단을 위한 고상한 미풍은 함흥의학대학의 청년대학생들속에서도 높이 발휘되고있다. 허광혁, 한혁철동무를 비롯한 청년대학생들은 군사복무시절의 그 기세, 그 기백으로 학습과 조직생활을 혁명적으로 해나가고있다. 또한 청년대학생들은 전신화상을 입은 환자가 병원에 들어왔을 때에는 서슴없이 피와 살을 바치는 아름다운 소행을 발휘하여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였다.

이밖에 도안의 여러 대학의 청년대학생들속에서도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는 아름다운 소행들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선군청년전위의 값높은 영예와 긍지를 더욱 빛내여갈 청년대학생들의 열의는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이후에 더욱 높아지고있다.

우리 사회주의사회에서만 볼수 있고 우리 시대 청년들만이 펼칠수 있는 이런 감동깊은 화폭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중시사상을 더욱 빛내여가시며 청년들을 시대의 앞장에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기어이 보답해갈 우리 청년들의 불타는 신념과 의지, 드높은 애국충정의 발현이다.

본사기자 지혁철

력사의 땅 창성은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을 길이 전한다

유 평 , 창 골 혁 명 사 적 지 를 찾 아 서

내 조국땅의 그 어디에나 조국의 운명과 인민의 행복을 지켜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이 력력히 어려있어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온 나라 강산에 굽이치는 7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은 뜨거운 추억으로 젖어들고있다.

얼마전 우리는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쳐부시고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전승사를 수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발자취를 따라 력사의 땅 창성을 찾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류력사에는 우리 수령님처럼 한평생 혁명의 총대를 틀어쥐고 반제대결전의 최전방에서 특출한 군사전략과 령군술로 백승을 떨쳐온 만고의 령장, 분무를 겸비한 장군형의 수령은 일찌기 없었다.》

조국의 북변에 자리잡고있는 창성은 준엄한 전화의 나날 이곳에 새겨진 우리 수령님의 거룩한 자욱으로 하여 오늘도 력사의 고장으로 빛나고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성에 오시였을 때는 과연 어떤 때였던가.

당시 거듭되는 참패에 당황망조한 미제는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한데 이어 우리 조국을 집어삼키려고 대병력을 투입하면서 미친듯이 달려들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천강이북지역들에로 최고사령부 지휘소를 전개하시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시면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최고사령부로 정하신 로정을 따라 우리가 먼저 찾은 곳은 유평혁명사적지였다.

우리와 만난 강사 강혜경동무는 두해전 6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적지에 찾아오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곳에 계신 하루는 우리 당력사에 길이 새겨질 잊지 못할 날이라고 말씀하시였다는데 대하여 감격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유평혁명사적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해방전쟁의 가장 준엄한 시기였던 주체39(1950)년 10월 26일 최고사령부로 정하시고 하루동안 사업하신 유서깊은 곳이다.

유평으로 오시던 길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인들을 만나게 되시였다. 그때 군인들은 행군로상에서 《김일성장군의 노래》도 부르고 장편서사시 《백두산》도 읊으며 휴식하고 있었다.

몇명의 군인들을 부르시여 그들이 최고사령부를 호위하기 위하여 찾아온다는 사연을 알게 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없으니 빨리 부대를 따라가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라고, 이것이 곧 최고사령부를 호위하는 길이라고 뜻깊은 교시를 하시였다.

유평혁명사적지의 입구에 들어서면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을 길이 빛내이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충정에 떠받들리여 새로 모셔진 모자이크벽화 《잊지 못할 유평의 이른새벽》이 한눈에 안겨온다.

축축히 젖은 짚단우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우등불을 바라보시며 전쟁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실 구상을 무르익히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우러를수록 그날에 있었던 못 잊을 사연들이 깊은 추억속에 되새겨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유평리에 있는 농민의 집에 도착하시였을 때는 새벽 3시경이였다.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농민의 집으로 모시려고 하자 수령님께서는 만류하시며 주인이 놀랄수 있으니 밖에서 숙영하자고 하시면서 마당가에 우등불을 피우도록 하시였다.

마당가에서 밤을 지새우시며 이렇게 오래간만에 우등불앞에 마주앉으니 항일무장투쟁시기가 생각난다고, 일제를 때려부시니 이제는 미제가 달려들었다고, 놈들을 올가미에 잡아놓고 힘껏 족치자고 하시면서 원쑤격멸의 의지를 굳히시던 어버이수령님,

지금도 그려보느라면 농민의 집에서 잠시의 휴식도 없이 온 하루를 바쳐가시며 전쟁의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해 정력적으로 사업하시던 우리 수령님의 거룩한 모습이 숭엄히 어려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미 개시된 운산지구전투에 대하여 수시로 료해하시고 전략전술적문제들을 밝혀주시며 대담하게 포위망을 좁히고 드세찬 공격으로 적들을 철저히 격멸소탕할데 대하여 명령하시였다.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방어를 더욱 강화하며 인민군부대들의 전투준비상태를 료해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이 집에 머무르시는 기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지휘관들과 전사들을 만나시여 그들에게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시였으며 농가를 떠나실 때에는 수행성원들에게 부엌을 리용하면서 손상을 준것이 없는가 살펴보게 하시고 토방에 있는 고구마를 보시고서는 날씨가 차지는데 얼지 않게 잘 보관하라고 당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새겨져있는 력사의 땅 유평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그 이름을 더더욱 온 세상에 떨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간고한 시련의 험한 길을 헤치시며 안아오신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빛나는 승리와 수령님의 령도따라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발휘한 1950년대의 정신을 영원히 잊지 말고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자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깊은 말씀이 오늘도 유평의 하늘가에 끝없이 메아리치고있다.

우리는 한없이 숭엄해지는 마음을 안고 취재길을 달려 창성읍에 있는 창골혁명사적지로 향하였다. 차창밖으로 흘러드는 깊은 산골의 자연풍치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은 깊었다.

전승 60돐이 되는 뜻깊은 해의 6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실 숭고한 념원을 안으시고 창골혁명사적지에도 령도의 자욱을 아로새기시였다.

창골혁명사적지에 도착한 우리는 강사 최수정동무로부터 경애하는 원수님을 사적지에 모시였던 그날의 사연을 전해들으며 농민의 집마당에 들어섰다.

《ㅁ》자형의 조선식기와집으로 된 창골농민의 집, 바로 여기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9(1950)년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계시면서 당과 군대의 중요한 회의를 지도하시였으며 전쟁국면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투쟁을 조직령도하시였다.

창골에서의 8일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밤늦도록 사업하시면서 전선서부에서의 강력한 반타격전, 전선동부에서의 완강한 방어, 적후 제2전선사업을 보다 적극화하여 차후 결정적인 반공격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전쟁 제3계단 1차작전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10월 30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군관, 장령회의를 친히 소집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은 군인들의 정치도덕적우월성에 있다고 하시면서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영용하게 싸운다면 아무리 기술적으로 우세한 적이라도 능히 타격할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전쟁승리의 결정적요인은 군인들의 정치도덕적우월성에 있다!

침략자들의 기술적우세를 혁명군대의 정치도덕적우월성으로 타승하시려는 천출명장의 선언은 회의참가자들을 얼마나 격동시키였던가.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참가자들앞에서 우리 인민의 향도적력량인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가 있고 각성되고 단련된 인민과 필승불패의 인민군대가 있는 이상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의 지휘관들과 전사들속에서 혁명적규률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적들에게 준엄한 철추를 내릴 전투적과업들을 밝혀주시였다.

조국앞에 준엄한 시련이 닥쳐온 그 시각 이렇듯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시던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오늘도 창골혁명사적지에 보존된 뜻깊은 사적물들이 전하여주고있었다.

전화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업하시던 방에서 우리는 눈길을 뗄수가 없었다.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우리에게 강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사적지를 찾으신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방안을 유심히 살펴보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 리용하신 이 수수한 사적건물, 혁명사적물, 창골혁명사적지가 그대로 우리 수령님의 영상이라고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습니다.》

수령님의 영상! 우리의 가슴을 얼마나 뜨겁게 울려주는가.

책상과 의자, 전화기만 놓여져있는 바로 이 자그마한 방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여시고 **《반공격준비를 잘하며 인민군대내 규률을 강화할데 대하여》** 라는 력사적인 결론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결론에서 인민군대안에 강력한 반공격력량을 마련할데 대하여서와 우리 인민군지휘관들속에서 최고사령부 명령지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울데 대한 문제, 인민군대안에 군중규률을 세울데 대한 문제 등 중요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특히 이미 속사골에서 있은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결정대로 인민군대안에 있던 문화부를 정치부로 개편하고 당단체를 내오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킬데 대해서 강조하시였다.

뜻깊은 사적내용을 들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창골혁명사적지는 인민군대를 당의 군대로 만드는데서 중요한 사적내용이 깃들어있는 혁명사적지라고 하시면서 준엄한 시기에 수령님께서 오시여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이 있기에 오늘도 있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진정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우리 수령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었기에 전쟁의 전환적국면이 열릴수 있었고 위대한 전승이 있었기에 자주적존엄과 위력을 높이 떨치는 우리 조국의 찬란한 오늘이 있는것이다.

창골혁명사적지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들과 꼭같이 생활하신 감동적인 이야기도 깃들어있었다. 우리 수령님께서 수령도 인민의 아들이라고, 인민들이 잡곡밥을 먹을 때에는 자신께서도 잡곡밥을 먹어야 한다고 하시며 망에다 강냉이를 타개여 지은 잡곡밥으로 식사를 하신 사연, 지금 인민들과 군인들이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며 피어린 싸움을 하고있는데 내가 어떻게 화려한 승용차를 타고다니겠는가고 하시며 고급승용차대신 수수한 야전승용차를 그대로 리용하신 일화들을 남기신 곳이 바로 창골이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려운 때일수록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시며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이 땅에 전승의 축포가 오른 때로부터 세월은 많이도 흘렀다. 하지만 력사의 땅 창성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과연 어떤 위대한분을 수령으로 모시고 어떤 정신으로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는가를 오늘도 격조높이 전하여주고있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귀전에 들려온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한마디로 사상의 승리, 전략전술의 승리, 정신의 승리라고 말할수 있다. …

력사의 땅 창성이여,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신 영원불멸할 전승업적을 천만년 대를 이어 길이 전하라.

글 본사기자 림 정 호

— 유평혁명사적지에서 —

— 창골혁명사적지에서 —

사진 본사기자 전 성 남

녀성농민이 옮겨앉은 자리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금도 총포탄이 울부짖는 가렬한 전화의 나날 조국을 지켜싸운 유명무명의 사람들속에 녀성들의 위훈도 빛나고있음을 소중한 추억속에 간직하고있다.

하지만 전쟁의 불구름이 타래치던 이 땅에서 열린 어느 한 대회에서 평범한 녀성농민이 주석단에 그것도 다름아닌 우리 수령님의 자리에 앉는 감동깊은 화폭이 펼쳐졌던 사실을 알고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것이다.

력사에 아로새겨진 잊지 못할 이 이야기는 과연 어떻게 생겨난것이였던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오랜 기간 혁명을 해오시면서 그가 누구든 일단 동지적관계를 맺으시면 그의 운명과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해주시였으며 수천수만의 혁명전사들을 한품에 안아 크나큰 믿음을 주시고 온갖 사랑을 다 베풀어주시였다.》

주체42(1953)년 1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평양의 모란봉지하극장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력사적인 전국농민열성자대회가 열리였다.

이 대회에는 안악군 오국리에서 온 어러리벌의 한 녀성농민도 참가하였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일가친척 16명을 적들에게 학살당하였으나 굴하지 않고 열성껏 농사를 지은 그는 수십가마니의 전선원호미와 애국미를 바친 다수확농민이였다.

녀성농민의 애국적헌신성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가 대회에서 주석단에 앉도록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녀성농민이 보내온 벼이삭을 대회장에 들고나오시였다.

소담하게 여문 그 벼이삭을 참가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것이 어러리벌 다수확농민이 농사지은 벼이삭이라고 그리도 기뻐하시였다.

손수 벼를 비벼 겨를 날리시고 그 무게까지 가늠해보신 우리 수령님,

쌀이 있어야 전쟁에서 이길수 있다고 하시면서 전시알곡생산을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휴식시간이 되자 그를 부르시여 크나큰 은정도 거듭 안겨주시였다.

잠시후 대회가 다시 시작되여 녀성농민이 주석단의 자기 자리에 가앉으려고 할 때였다.

한 일군이 다가와 위대한 수령님께서 급한 일때문에 회의에 계속 참가하시지 못한다는것과 자신께서 앉으셨던 자리에 그를 앉히라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는 사실을 전하였다. 그러면서 일군은 어서 자리를 옮겨앉으라고 권하는것이였다.

(아니, 수령님께서 앉으시는 자리에 내가 어떻게?…)

한가슴으로 받아안기에는 너무도 벅찬 감격,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위대한 사랑앞에 그는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평범한 농촌녀성이 수령님 자리에 앉다니… 세상에 있을법이나 한 일인가.)

그가 이런 생각으로 제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일군이 다시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부하신대로 꼭 그 자리에 가앉아야 한다고 하면서 녀성농민의 손을 이끌었다.

해방전 머슴살이를 타고난 팔자로 여기던 녀성농민, 해방의 새봄을 안겨주시고 땅을 주신 우리 수령님의 은덕이 너무 크고 고마와 전선원호미와 애국미를 바치는 일에 앞장섰을뿐인 그는 꿈같은 이 사실앞에서 끝끝내 참고참았던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남편과 4살잡이 아들애를 잃고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그였다.

수많은 시선이 그에게로 쏠리였다.

주석단에 함께 앉았던 사람들도, 일군의 안내를 받아 자리를 옮겨앉는것을 본 참가자들도 뜨거운 눈물을 소리없이 흘리였다. 그 눈물은 언제나 인민에게 모든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눈물이였다.

이 나라의 평범한 녀성농민이 국사를 의논하는 대회의 주석단에 올라 우리 수령님의 자리에 앉은 전설같은 이야기는 준엄한 전화의 불길속에서 이렇게 태여났다.

본사기자 리 금 분

포화속에서 꽃펴난 청춘과원의 새 력사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의 기간은 비록 3년간이였지만 우리 수령님께서는 그 3년동안에 뜨거운 믿음과 사랑,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락관으로 빛나는 한없이 위대하고 거룩한 자욱을 남기시였다.

우리 수령님의 전선길,

력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전쟁과 파수력사라는 이 이야기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헤쳐오신 전선길에 새겨진 수많은 일화들중의 하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은 위대한 령도자이시였을뿐아니라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이시였으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습니다.》

주체41(1952)년 2월 어느날이였다.

전선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구일봉기슭의 고개길에서 차를 세우도록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포연이 서린 야산으로 오르시였다.

방금 폭격을 맞은듯 폭탄구뎅이들로 하여 벌둥지처럼 패이고 황폐화되여 볼품이 없는 주변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들이 불타고있다고, 공장과 농촌마을이 불타고있으며 아름다운 조국산천이 불타고있다고 못내 가슴아파하시였다.

인민군용사들이 피로 지킨 조국의 한치땅이 더없이 소중하신듯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폭탄구뎅이와 재가루로 뒤덮인 야산을 깊은 생각속에 거니시였다.

잠시후 걸음을 멈추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불타고있는 이 야산들에도 과수원을 일구자고, 여기는 평양도 가깝고 땅도 잘 걸구면 과수원을 만들기에는 좋을것 같다고 하시였다.

이 고장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데려오라고 이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타고있는 무연한 등판을 오래도록 바라보시였다.

전쟁에서 승리한 인민군대와 인민들에게 신선한 과일을 안겨주시기 위해 깊이 마음쓰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곳을 장차 수도의 과실공급기지로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이야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곳 농민들을 통하여 이 일대의 형편을 자세히 알아보시였다.

이 일대는 땅이 메마르다고 하여 《불동촌》이라고 불리워왔다. 아무도 가꾸지 않아 잡관목들만 우거져있던 무연한 야산들이 그나마 미제의 무차별폭격으로 몽땅 불타버리고말았다. 불에 탄 면적은 수백정보나 되였다.

농민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주변의 무연한 등판을 가리키시며 앞으로 여기에 과수원을 만들자고, 개인경리처럼 분산적으로가 아니라 후손만대에 물려줄 대규모과수농장으로 꾸리자고, 그리고 여기에 인민들이 좋아하고 기후조건에도 알맞는 수종이 좋은 과일나무들을 골라심도록 하자고 힘있게 선언하신 우리 수령님,

그후 전선에서 싸우던 인민군 군인들과 과일나무모까지 보내주신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는 얼마나 가슴뜨거운것이였던가.

포화속에서 꽃펴난 《불동촌》의 과수력사,

대규모의 과수원으로, 수도의 믿음직한 과일공급기지로 꾸려진 평양과수농장의 력사는 바로 이렇게 시작되였다. 오늘 구일봉에 펼쳐진 청춘과원은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를 길이 전하며 사과꽃향기를 풍기고있다.

이런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가 어찌 구일봉에만 있으랴.

백두대지에 펼쳐진 대규모농장과 희천의 위력한 기계공업기지를 비롯한 도시와 농촌, 공장과 발전소, 대학과 병원 등 이 땅 이르는 곳마다에 준엄한 전화의 나날 승리한 조국의 래일을 구상하신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수놓아져있다.

본사기자

령도업적단위들은 수령의 유훈관철전의 기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서 령도업적단위들이 앞장서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전진하는 대오에는 기수가 있어야 한다. 기수란 한마디로 말하여 대오의 앞장에서 기발을 들고나가는 선구자이다.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선두에서 헤쳐나가는 기수의 역할에 따라 대오의 전진속도가 결정되고 혁명의 성패가 좌우되게 된다.

우리 당은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령도업적단위들을 유훈관철의 선구자로 내세우고있다. 여기에는 령도업적단위들을 본보기로 하여 온 나라에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게 하고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진군에 박차를 가하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과 크나큰 믿음이 깃들어있다.

그러면 왜 령도업적단위들이 수령의 유훈관철전의 기수가 되여야 하는가.

그것은 우선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잇닿아있는 필수적요구이기때문이다.

혁명은 수령의 위업이며 그 승패는 수령의 사상과 업적을 어떻게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그 어떤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수령이 가리켜준 길로, 수령의 구상과 의도대로 전진하는 혁명은 불패이다.

우리 조국땅에는 그 어디에나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수천척지하막장과 험한 논두렁길에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헌신의 자욱이 어려있고 외진 산간마을과 크지 않은 지방산업공장들에도 수령님들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이 새겨져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생애의 전기간 지구둘레를 근 17바퀴나 돈것과 맞먹는 167만 4 610여리의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무려 1만 4 290여개의 단위를 찾으신 사실만 놓고서도 우리 장군님께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얼마나 크나큰 로고를 바치시였는가를 잘 알수 있다.

령도업적단위들에 새겨져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은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강령적지침이다.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천재적인 사상리론적예지와 원대한 리상과 념원이 집대성되여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방향과 방도가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령도업적단위들이 성과를 이룩하고 모든 면에서 앞장서나간다는것은 곧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이 자랑찬 현실로 꽃펴난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우리 혁명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대로 전진하고 승리해나간다는것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령도업적단위들이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기수가 되고 본보기가 되는것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중대한 문제라고 할수 있다.

령도업적단위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심장깊이 새기고 더욱 분발하여야 한다. 령도업적단위들이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달려나갈 때 수령의 사상과 업적은 더욱 빛나게 되고 온 나라에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된다.

그것은 또한 현시기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령도업적단위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과도 관련된다.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자면 중심고리를 찾아쥐여야 한다. 중심고리를 정확히 선정하고 거기에 힘을 집중하여 먼저 풀어야 다른 고리들도 쉽게 풀수 있고 사업전반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다.

전형을 창조하고 그 모범을 일반화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령도원칙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혁명령도의 나날 엄혹한 시련이 앞을 가로막을 때마다 문제해결의 중심고리로 될수 있는 단위들을 찾아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였다. 3년간의 전쟁으로 모든것이 파괴되였던 전후시기 강선땅을 찾으시여 천리마대고조의 봉화를 지펴올리신분이 위대한 수령님이시며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에 강계정신을 창조하도록 이끄시여 이 땅우에 강성국가건설의 장엄한 포성이 높이 울려퍼지도록 하신분이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전인민적인 총진군을 진두에서 이끄시며 불면불휴의 현지지도강행군실록을 수놓아가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고결한 충정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으로 이어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현지지도는 천만군민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절세위인들의 현지지도자욱이 새겨져있는 령도업적단위들은 다 해당 분야, 해당 부문에서 중추적인 위치에 있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단위들이다. 여기에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돌파구로 되는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도 있고 과학과 교육, 보건과 체육을 비롯하여 문명국건설을 앞장에서 선도해나갈수 있는 단위들도 있다. 이런 단위들이 자기 분야, 자기 부문에서 기수가 되여 용을 쓰며 일떠서야 다른 단위들과 련관단위들이 따라서게 되고 혁명과 건설전반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날수 있다. 오늘 농업과 경공업, 수산부문을 비롯하여 여러 부문에서 이룩되고있는 자랑찬 성과들은 령도업적단위들의 위치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령도업적단위들에서는 수령의 유훈관철전의 기수로 내세워준 당의 의도를 깊이 새기고 총공격전의 앞장에서 시대를 격동시키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감으로써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야 할것이다.

조 학 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정권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간다. —순천시 리수복청년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림 학 락 찍음

숭고한 그 념원 받들어 이 땅우에 사회주의경제강국을 일떠세우자

어버이수령님께서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를 지도하신 력사의 날을 맞으며

성강의 노을이여, 그 업적 길이 전하라

오늘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를 지도하신 때로부터 21돐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맞이한 성진제강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나라의 금속공업발전을 위하여 우리 수령님 한평생 바쳐오신 헌신의 로고를 다시금 뜨겁게 되새기고있으며 수령의 유훈관철전으로 줄기차게 이어온 날과 달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성진제강련합기업소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사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기업소입니다.》

성강, 그 이름 불러보면 해방후 조국의 북방의 하늘가에 울려퍼지던 인간사랑의 메아리가 쟁쟁히 들려온다.

한t의 강재가 천금같던 때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철이 아무리 귀중하다 해도 우리 로동자들의 생명과는 절대로 바꿀수 없다고 하시며 강철을 적게 생산해도 좋으니 원철로를 흔적도 없이 폭파해버리도록 하시였다.

어찌 잊을수 있으랴. 주체37(1948)년 6월 이곳을 찾으시여 강철직장 3호전기로 용해공들과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던 우리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기로에서 사품치며 끓는 쇠물보다 먼저 로동계급의 생활형편을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당시 그들은 외출복과 작업복, 외출신발과 작업신발이 따로 없이 생활하고있었다. 하지만 성강로 동계급은 그러한 생활상애로는 아랑곳없이 강철생산에만 전념하고있었다.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조이며 새 조국건설을 벌리던 시기였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라의 금고를 아낌없이 열어 성강의 로동계급모두에게 옷천과 신발들을 보내주시였다.

친혈육도 줄수 없었던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은 불보다 뜨거운 심장을 지닌 백절불굴의 인간들을 키웠다.

적들의 맹폭격과 함포사격으로 제강소가 혹심하게 파괴되였던 전화의 나날 산속에 갱도를 뚫고 굴함없이 쇠물을 부어내던 성강의 정신력, 전쟁이 끝난 해인 주체42(1953)년 9월에 벌써 복구된 전기로에서 첫 쇠물을 뽑는 기적을 창조하던 성강의 투쟁본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주체43(1954)년 9월말까지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성강의 로동계급에게 자신의 존함으로 된 축하문을 보내주시였으며 그해 12월에는 성강의 로력혁신자들을 평양에 불러 성대한 연회까지 마련해주시였다.

성강의 로동계급과 이야기를 나누실 때마다 이런 동무들을 만나면 늘 마음이 든든해진다고, 이들과 함께라면 하늘의 별도 따올수 있다고 하시며 북방의 대야금기지에 수없이 아로새긴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의 자욱자욱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때로는 로동자합숙에 들리시여 합숙생들의 밥그릇도 마주하시고 때로는 먼지날리고 단김을 확확 내뿜는 생산현장들을 찾고 또 찾으시며 자동화, 현대화의 방향과 방도도 밝혀주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때로는 이곳 로동계급에게 우유와 두부를 많이 먹일수 있게 하시려고 성강에서부터 수십리 떨어진 외진 산골농장에까지 험한 길을 이어가셨으니 어버이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우유운반차가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울리던 사랑의 경적소리는 오늘도 련합기업소의 구내길에 메아리치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 그 령도의 손길에 이끌려 성강은 나라의 금속공업발전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한 대야금기지로 전변될수 있었다.

우리 조국이 전대미문의 시련을 겪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온 나라를 불러일으키며 타오른 성강의 봉화는 위대한 장군님 따라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관철전에 떨쳐나선 이곳 로동계급의 군상이였다.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의 강철기둥인 성강에서 쇠물이 영영 식어버리기를 기다리고있던 운명의 그 시각에 성강사람들은 숨죽어가던 로들을 하나하나 일궈세워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강철생산목표를 기어이 돌파하는 영웅적인 기적을 창조하였다.

평온한 날에도 쉽게 해낼수 없는 강철생산목표를 수행해낸 성강의 로동계급은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사람은 주체철을 해야 한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간곡한 유훈을 심장깊이 새기고 주체철의 탄생이라는 기적의 탑을 련이어 쌓아올렸다. 금속공업에 산소를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오늘은 산소를 가지고 못하는것이 없는 단위, 산소맛을 단단히 보고있는 단위로 되였다.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을 받들던 그 나날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을 강철로 결사옹위하자!

북방의 대야금기지 어디서나 울려퍼진 이 신념의 웨침은 당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새로운 강판생산에서 성공하는 놀라운 기적을 안아왔다. 주체철생산의 오늘뿐아니라 먼 앞날까지 내다보며 더욱 치밀하게 세운 기술발전전략에 따라 주체철생산공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개조되였으며 여러 가열로들에 고온공기연소기술이 도입되는 혁혁한 성과도 이룩되였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너무도 잘 알고있다.

강성국가건설에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가 얼마나 무겁고도 영예로운가를, 어찌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지도하신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에서 성진제강련합기업소의 생산문제를 놓고 그토록 강조하시였는가를!

성강의 노을은 오늘도 불란다.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빛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며 강철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해가는 장엄한 진군길의 맨 앞장에서 성강은 질풍쳐 내달리고있다.

본사기자 김 충 성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자들

간곡한 유훈 심장에 새기고

해마다 7월이 오면 우리 인민모두는 삼가 옷깃을 여미고 위대한 어버이의 영상을 뜨겁게 우러른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나라의 경제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향과 명백한 방도를 가르쳐주신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

어버이수령님의 간곡한 유훈을 심장에 새기고 증산의 동음을 끊임없이 울려가는 단위들중에는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업적은 대고조의 승리를 위한 지침이며 확고한 담보입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진 최근년간 기업소에서는 참으로 자랑할만 한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자체의 철광산이 개발되고 새 공장건설과 맞먹는 방대한 1호생산계렬개건공사가 성과적으로 결속되였다. 현대적인 분석수단에 의한 과학적인 품질관리체계가 확립되여 질좋은 세멘트가 대량적으로 생산되고있는것도 기업소에 펼쳐진 자랑스러운 현실이다.

생산성과가 나날이 확대될수록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심장마다에는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큰 몫을 맡고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이 끝없이 넘쳐나고있다.

당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기 위해 생산공정과 설비들의 현대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혁신적인 투쟁기풍과 일본새는 생산되는 세멘트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되고있다. 오늘날 기업소에서 생산되는 세멘트는 과학기술전당과 미래과학자거리,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와 청천강계단식발전소를 비롯한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을 일떠세우는 대건설전투장마다에서 그 수요가 대단히 높다.

지난 1월 기업소에서 대량적으로 생산되는 세멘트에 나라의 최우수제품에 주는 12월15일품질메달이 수여되였다.

이것은 어버이수령님의 간곡한 유훈을 높이 받들고 위대한 장군님을 기업소의 명예지배인으로 높이 모신 영광의 일터에서 제품의 질제고를 위해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는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순결한 충정을 보여주는 뚜렷한 실례이다.

최근년간 련합기업소에서 실현한 고질세멘트의 국산화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이룩한 또 하나의 자랑찬 성과이며 나라의 세멘트공업발전에 새로운 리정표를 세운 긍지높은 결실이다.

걸어온 자욱마다에 기업소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위훈은 그렇듯 큼직하게 새겨졌다. 우리 당이 마련해준 위력한 건재생산기지의 숨결을 지켜선 긍지드높이 이들은 래일에 대한 승리의 신심을 더욱 굳게 간직하고 세멘트증산의 동음을 더 높이 울려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우리 당의 원대한 강성국가건설위업을 받드는 길에서 언제나 전초병이 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친필서한을 자신들의 뼈와 살로 더 깊이 새겨안으며 기업소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오늘도 나라의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생산돌격전에 드센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지 원 철

공화국의 영원한 시책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대원수님들께서는 세상에서 처음으로 온 나라 아이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새 교복을 해입히는것을 공화국의 영원한 시책으로 정해주시고 나라의 제일 좋은 곳에 멋있는 소년궁전과 야영소들을 지어주시고도 우리 학생소년들에게 더 좋은것을 안겨주시기 위해 늘 마음쓰시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스물한해전 7월 6일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를 지도하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경제봉쇄책동을 짓부시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데 대한 방향과 방도를 하나하나 밝혀주시면서 학생들의 교복생산문제도 료해하시였다.

생의 마지막시기까지도 학생들의 교복문제를 두고 그토록 마음쓰신 우리 수령님!

세월이 흐르면 많은것이 잊혀진다고 하지만 더욱 뚜렷이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새겨져 지워지지 않는것이 바로 학생들의 교복에 깃든 전설같은 이야기들이다.

돌이켜볼수록 잊을수 없다.

온 나라 학생들에게 교복을 해입히신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오랜 시간 새옷입은 아이들과 함께 계시며 몸소 그들의 사진을 한장 한장 찍어주시던 우리 수령님,

영원한 봄날의 그 사진은 오늘도 이 땅에 자식을 둔 부모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의 가슴에 깊이깊이 새겨져있다.

국가가 아이들의 교복을 맡아 해결하는 우리 당의 시책이 그대로 실시되도록 우리 장군님께서는 또 얼마나 심혈과 로고를 기울여오셨던가. 조국이 시련을 겪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전당적, 전국가적조치에 의해 학생들의 교복생산은 중단없이 진행되였다.

우리 당의 후대사랑의 력사는 이런 전설같은 이야기를 수많이 새기며 흘러왔다.

절세의 위인들께서 지니셨던 후대들에 대한 숭고한 사랑은 오늘도 이 땅우에 더욱 줄기차게, 더욱 뜨겁게 흐르고있다.

나라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학생들에게 무조건 교복을 해입혀야 한다고, 이 사업은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그만두어도 되는 사업이 아니라 죽으나사나 무조건 해야 할 사업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절절한 말씀을 격정속에 받아안은 우리 인민이였다.

당중앙위원회 회의실을 꽉 채운 교복도안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교복천생산현장을 몸소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생산자들을 고무해주신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우리 어찌 다 전할수 있으랴.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여 영원히 흐르는 후대사랑의 력사를 높은 생산성과로 빛내이기 위한 교복생산전투는 뜨거운 날과 달의 련속이였다.

경공업성, 식료일용공업성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 일군들과 각급 당, 정권기관 일군들이 방대한 량의 교복을 제 기일안에 만들기 위한 작전을 치밀하게 세우고 현지에서 자재보장과 수송을 책임적으로 지휘하였고 들끓는 생산현장들에서는 기대들의 동음이 높이 울려퍼졌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속에 색갈도 형태도 새로와진 교복을 떨쳐입은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인민은 무엇을 느끼고 확신하였던가.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여 후대사랑의 력사는 이 땅우에 영원히 흐를것이라는 격정이고 내 조국의 창창한 미래에 대한 환희이다.

본사기자 리 철 옥

《수령님, 주체비료가 쏟아집니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의 유훈의 뜻이 꽃펴나는 우리 조국의 부강번영속에 수령님의 력사는 계속 흐르고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경제봉쇄책동으로 나라사정이 그토록 어려웠던 시기에 비료생산공정의 주체화,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비료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하나하나 밝혀주시고 커다란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며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방대한 량의 무연탄가스화공사를 비롯한 여러 생산공정건설과 현대화공사에서 남흥로동계급의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그들은 련관단위들과의 긴밀한 협동밑에 없는것은 자체로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찾아내면서 몇해 안되는 짧은 기간에 하나의 큰 공장건설과 맞먹는 무연탄가스화공사를 성과적으로 끌내고 주체비료생산의 우렁찬 동음을 안아왔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노도쳐 내달리는 남흥의 로동계급은 이미 거둔 성과를 공고히 다지며 생산의 과학화수준을 계통적으로 높여 조업당시에 비해 생산을 2배이상 끌어올리였으며 지난해에는 주체비료생산에서 최고생산실적을 기록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이 그 아무리 집요하게 계속되여도 우리에게는 두려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인민경제 중요부문들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던 어버이수령님, 지금 이 시각 력사의 그날을 가슴뜨겁게 새겨보는 굴지의 비료생산기지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할 불같은 신념과 의지로 가슴 불태우며 뜨거움에 젖은 심장의 말을 아뢰고 또 아뢰고있다.

《수령님, 주체비료가 쏟아집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전 성 삼

보배강, 락원의 강의 래일을 앞당기며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분,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사적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한없는 그리움속에 7월의 날과 날이 흐를수록 수백리 청천강전역에서 수령의 유훈관철전의 불길이 활화산마냥 거세차게 타번지고있다. 우리의 미더운 청천강용사들은 주체적인 전력공업의 자랑찬 발전력사와 더불어 찬연히 빛나는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더욱 가슴뜨겁게 되새겨보며 보배강, 락원의 강의 래일을 앞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산악같이 떨쳐나 완공의 결승선을 향해 폭풍쳐 내달리고있다.

10개 발전소의 언제와 발전기실건설과제 기본적으로 수행, 발전설비 및 수문조립설치 본격적으로 진행, 운영건물들과 종업원살림집건설 등 공사과제들도 힘있게 추진…

실로 만사람을 격동시키는 자랑찬 위훈이다. 모두의 심장마다에 뜨겁게 굽이치는 절세위인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의 대하가 더욱더 눈부신 기적창조의 원동력으로 되여 전투장마다에서 비약의 폭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보배강, 락원의 강의 래일을 하루빨리 앞당겨 그날의 간곡한 유훈 자랑찬 현실로 꽃피우리라!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열린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에서 수력발전소건설을 다그쳐 끝낼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음성을 심장깊이 되새기며 애국충정의 대오가 산악같이 일떠섰다.

특히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의 완공기일이 결정되게 될 물길굴공사장 전구간에 피눈물의 언덕에서 다진 맹세를 목숨바쳐 지키려는 강렬한 열망이 세차게 맥박치고있다. 6개 단위의 돌격대원들과 청년결사대원들, 물길굴공사에 떨쳐나선 자강도와 채취공업성려단의 전투원들이 대형화물자동차들을 막장안에 진입시키고 여러개의 전선을 동시에 타고앉아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치렬한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수천척지하막장 그 어디나 신념과 의지의 치렬한 대결장이고 제일 어려운 굴진막장은 지휘관들의 일선참호이다.

전구간의 물길굴상부피복공사과제 기본적으로 수행! 이것은 단순한 공사실적이 아니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어버이수령님의 웅대한 전기화구상을 경제강국건설의 중요한 지침으로 심장깊이 새겨안고 유훈관철의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으로 떳떳이 들어서려는 이곳 돌격대원들의 불타는 충정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이미 희천7호발전소건설장에서 첫 발전설비시운전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매일 많은 량의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대로 청천강을 보배강, 애국의 강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력사적인 한페지를 뜻깊게 장식하였다.

평양시와 평안남도, 황해남도 려단, 금야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와 평안북도, 철도성, 남포시와 함경남도려단의 전투원들도 완공단계에 이른 공사장마다에서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지금 이 시각도 수백리 청천강전역에서 헌신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지휘원들, 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 정녕 이들의 심장마다에서 활화산마냥 강렬하게 분출하고있는것은 과연 무엇인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선인 희천발전소건설장을 여러차례나 찾아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이으시여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을 중요건설대상의 첫자리에 거듭 내세워주시며 돌격대원들에게 하늘같은 믿음과 크나큰 은정을 안겨주신 우리 원수님,

멀고 산세험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며 백두산칼바람에 돛을 달고 대대손손 물려줄 조국의 만년재부를 일떠세움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애국충정의 심장에 삶의 피줄을 잇고 사는 이들이다.

계단식발전소들을 모두 훌륭히 일떠세워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의 력사가 청천강과 더불어 줄기차게 흐르게 하리라.

이렇듯 고결한 충정을 지닌 전체 지휘관, 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그리움의 대하가 끌없이 흐르는 7월의 이 시각도 청천강계단식발전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들이 당창건 일흔돐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선물로 훌륭하게 일떠서고있다.

본사기자 정 순 성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열린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가 전력문제만 풀면 지금 있는 경제토대를 가지고도 잘살수 있다고, 전력문제를 풀자면 화력발전소들을 만부하로 돌리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그때로부터 스물한돌기의 년륜이 새겨지는 오늘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일군들과 탄부들은 어버이수령님의 현지교시판앞에서 마음속결의를 다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별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끌없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덕천지구탄광들의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석탄공업부문적으로 처음 련합기업소를 무어주시던 나날에 련합기업소가 틀어쥐고나아갈 강령적지침을 주시였다.

세월은 멀리 흘렀어도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관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는것은 련합기업소일군들과 탄부들의 가슴속에 억세게 자리잡힌 철의 의지이다.

석탄증산으로 들끓는 지하막장 그 어디를 돌아보아도, 탄광기계공장, 탄광부재공장을 비롯한 보장단위일군들과 로동자들을 만나보아도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는 길에 경제강국의 래일이 있고 자기들도 잘살게 된다는 가슴후련한 대답을 들을수 있다.

지난 6월, 덕성탄광에서 있은 일이다.

초순부터 예견치 않았던 정황으로 하여 석탄생산량이 대폭 줄어들었다.

일군들과 탄부들 누구나 화력발전소에 계획된 석탄을 보장하지 못하는것으로 하여 가슴을 쳤다.

6월 석탄생산계획을 미달하고 우리가 어떻게 7월을 맞이할수 있겠는가.

유훈관철전으로 들끓는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이런 자각을 안고 련합기업소와 탄광일군들은 갱막장으로 들어갔다.

삽시에 갱막장들은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졌고 일군들과 탄부들의 가슴속에서는 증산의 열기가 활화산처럼 타번졌다.

전차를 움직일수 없다면 탄차에 어깨를 들이밀었다. 일군들과 탄부들 누구나가 육탄이 되였다. 대중의 정신력이 총폭발되니 3갱, 5갱, 2갱 등 전반적 갱들에서 석탄계획수행의 승전고가 울려퍼졌다. 첫날에는 100%의 고지가 돌파되였고 어떤 날에는 배가의 증산실적이 기록되였다.

살아도 죽어도 화력발전소석탄보장을 기어이 해야 한다는 신념의 분출은 유훈관철전의 불길로 타번졌고 월 화력탄보장계획수행에로 이어졌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련합기업소 탄광들의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던 나날 갱도들의 영구화를 실현하고 탄부들의 살림집을 많이 지어줄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채굴심부가 나날이 깊어지는 현실조건에서 우리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자면 세멘트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하였다.

질좋은 세멘트를 생산하여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하여 책임비서, 지배인, 기사장을 비롯한 련합기업소 책임일군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였다.

리영동동무를 비롯한 련합기업소 탄광부재공장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련합기업소적으로 제기되는 세멘트수요를 원만히 보장할 일념을 안고 줄기찬 투쟁을 벌려 올해 상반년기간에 생산능력을 지난 시기에 비해 3배로 높이였다. 그리하여 나라의 귀중한 산림자원을 적극 보호하면서 탄광들의 갱도영구화를 실현하고 탄부들이 사는 거리와 마을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선경으로 일신시킬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관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나가고있는 련합기업소에서는 탄부들에 대한 후방사업에서도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이 꾸려진 탄부오리목장에서는 고기와 알생산을 높은 수준에 끌어올려 련합기업소탄부들에게 고기와 알을 정상공급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련합기업소후방기지들에서는 축산과 양어를 다양화하여 타조, 게사니, 철갑상어, 칠색송어도 길러냄으로써 탄부들의 식탁을 푸짐하게 해주고있다. 탄광들에서도 축산과 온실남새농사를 본때있게 하여 신선한 남새와 고기, 알을 보장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어느 하나 놓침이 없이 결사관철하기 위하여 련합기업소일군들이 책임성을 높이고 탄부들이 아글타글 애써 노력하니 이렇듯 훌륭한 결실이 맺어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강 명 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로동계급 본사기자 리 명 남 찍음

우리 사회의 참모습－인민은 하늘, 일군은 심부름군

일을 찾아하는 충복

강계시 신문동에 사는 정춘경녀성의 편지를 펼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은 이민위천의 사상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그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일해나갈 때만이 우리 당과 뜻을 같이하고 당을 진실로 따르는 참된 일군으로, 인민의 성실한 심부름군으로 될수 있습니다.》

시원한 선들바람이 부는 장자강기슭을 따라 취재차를 달리는 우리 가슴속에서 강계시 신문동 정춘경녀성의 편지구절이 울리고있었다.

《저의 집에는 두개의 렬사증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국놈들과 싸우다 희생된 저의 아버지의것이고 다른 하나는 9년전 군사복무를 하다가 전사한 둘째아들이 받은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비록 저의 곁을 떠났지만 그들로 인한 저의 마음속공백을 혈육의 정을 초월하는 따뜻한 사랑이 살뜰히 메꾸어주고있습니다.

몇해전 시급기관에서 왔다고 하면서 여러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와 생활에서 걸리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적극 나서서 해결해줄 때까지도 저는 그들이 어떤 일군들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발길은 끊기지 않고 계속되였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가고 하면서 가마뚜껑을 열어볼 때면 꼭 친정아버지가 온것 같았고 미처 손대지 못한 터밭울타리를 손질해줄 때는 미더운 아들을 보는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의 아버지의 무훈담도 들어주고 무도영웅방어대에서 복무하던 둘째아들에 대한 추억도 함께 나누는 그들, 저의 친혈육과 같은 그들은 강계시검찰소 일군들입니다.》

편지내용은 자못 절절했다. 하지만 일군들이 전사자, 전쟁로병, 영예군인가족들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도와주는것은 우리 사회의 하나의 기풍인지라 우리는 무수한 들꽃이 활짝 핀 대지에서 한송이 꽃의 그윽한 향기를 맡은 심정이였다.

그런데 장자강반에 조선식건물로 웅장화려하게 일떠선 인풍원에서도, 번듯하게 닦아진 로라스케트장과 뜻깊은 개관을 앞두고있는 강계립체률동영화관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의하여 일떠서는 도육아원, 애육원건설장을 비롯하여 가는 곳마다에서 강계시검찰소 일군들이 인민을 위해 바친 뜨거운 진정과 후더운 땀에 대한 찬사의 목소리를 듣게 되였다.

도의 한 일군은 지금껏 그들이 인민을 위해 발휘한 미풍사실들이 적힌 두툼한 문서를 내놓았다. 거기에는 당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단위들을 찾아가 로동자들이 생산활동과 문화생활을 혁명적으로, 문명하게 해나가도록 잘 이끌어주고있으며 시안의 수십세대에 달하는 전사자가족들과 전쟁로병, 영예군인들의 건강과 생활에 늘 관심을 두고 세심하게 보살펴주고있는 사실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실들이 기록되여있었다.

그중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다. 몇해전 9월 소장 최일환동무는 퇴근길에 우연히 물바께쯔를 들고가는 신문동의 여러 주민들을 보게 되였다. 그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자세히 알아보았다. 동의 어느 한 지구 주민들이 먹는물이 잘 나오지 않아 불편을 느끼고있었다.

최일환동무는 그날중으로 신문동의 수도공사를 위한 긴급사업포치를 하였다. 그리고는 제일 걸린 문제인 수도관을 해결하기 위해 출장을 떠났다. 안주시에 자리잡은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공장, 기업소들을 찾아다니며 수도관과 공사자재들을 구하기 위해 눈에 피발이 서도록 뛰여다니였다.

이렇게 되여 신문동지구에서는 큰 규모의 수도관공사가 벌어졌다. 전철성, 김명성, 김명식동무들을 비롯한 검사들이 팔을 걷고 지하에 들어가 수도공사를 하는것을 보고 신문동의 주민들은 눈굽을 찍었다.

그러지 않아도 바쁠 검찰일군들이 우리때문에 이런 고생을 한다고 하는 주민들에게 그들은 말하였다.

《인민들이 불편해하는것을 알면서도 제일이 아니라고 외면한다면 우리가 무슨 일군이겠습니까.》

검찰소일군들은 신문동의 수도관공사를 끝낸 후 시안의 모든 수도망들의 상태를 알아보고 불비한 점을 퇴치하도록 하였다.

오늘 나날이 달라지는 강계시의 면모속에는 인민을 위해 우리가 있다는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지닌 이들의 불같은 진정과 노력도 깃들어있다.

수령보위, 정책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성스러운 사명을 두어깨에 걸머지고 인민들이 고이 잠든 깊은 밤에도, 모두가 만시름을 놓고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휴식일이나 명절날에도 남모르는 위훈의 길을 걷는 그들이 인민을 위한 일들을 그토록 많이 한다는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우리의 가슴도 뜨거워졌다.

우리가 그들과 만났을 때 이런 심정을 이야기하자 최일환동무는 말하였다.

《우리 나라에서야 인민이 하늘이고 일군들은 심부름군이 아닙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인민에게 필요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는 충복이 되기 위해 뛰고 또 뛰겠습니다.》

일을 찾아하는 충복!

바로 그것이였다. 이 남다른 복무자세가 우리의 검찰일군들로 하여금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도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그토록 많이 하도록 한것이였다.

리 신 향

개천시 자작동 129인민반 박성진녀성이 들려준 이야기

작고도 큰 뜨락

우리 인민은 누구를 통해 당의 숨결을 가깝게 느끼는가.

그것은 당정책의 운명을 두어깨에 걸머지고 인민들이 걱정하는 문제, 인민들이 가슴아파하고 애로를 느끼는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 신발창이 닳도록 뛰여다니는 일군들이다.

우리는 그것을 얼마전 취재길에 들렸던 한 가정의 자그마한 뜨락에서도 감동깊이 체험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인민의 요구, 대중의 목소리에 무한히 성실하여야 하며 언제나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인민의 참된 심부름군으로 살며 일하여야 합니다.》

우리와 만난 개천시 자작동 129인민반에 살고있는 박성진녀성은 10여명의 자식들을 거느린 어머니이다. 한두자식도 아니고 10여명의 자식들을 슬하에 두고 정들여, 품들여 키우며 그가 남몰래 흘린 눈물, 남몰래 바친 노력은 얼마이랴. 하지만 우리와 만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정말이지 힘든줄 몰랐습니다. 우리 부부만이 아닌 탄광의 일군들과 마을사람들모두가 우리 애들의 부모가 되여주었으니까요.》

이렇게 말머리를 떼던 박성진녀성은 문득 우리에게 가마뚜껑을 열어보여주는것이였다. 흰쌀밥이 무드기 담긴 밥그릇들이 김을 피워올리며 주인들을 기다리고있었다.

《탄광초급당비서동지는 우리 집을 찾으면 제일먼저 쌀독과 가마부터 열어보군 합니다. 어머니가 제일 마음쓰는것중의 하나가 자식들을 배불리 먹이는게 아니겠습니까. 꼭 그 마음이라니까요.》

개천탄광 초급당비서 리봉술동무를 두고 하는 말이였다.

결코 무심히 들을수 없는 말이였다. 한 가정을 위해 기울이는 당일군의 다심한 인정과 살뜰한 손길이 후덥게 어려왔다.

지난해 11월 박성진녀성의 집에서는 뜻깊은 결혼식이 있었다.

김군혁, 김한혁, 김님혁동무들이 한날한시에 꽃같은 새색시들과 나란히 박성진녀성앞에 섰다.

《어머니, 저희들을 위해 온갖 고생을 달게 여기며 어머니가 바친 그 정을 우리는 잊을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합친 인사를 받아주십시오.》

박성진녀성은 자식들과 며느리들의 인사를 굳이 사양했다.

《너희들의 인사를 먼저 받아야 할 사람들은 여기에 참가한 련합기업소와 탄광의 일군들, 동사무소의 일군들과 마을사람들이다. 이 어머니의 마음까지 합쳐 그들에게 인사를 해라.》

그날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하는 자식들을 바라보는 박성진녀성의 마음속에서는 추억의 물결이 일렁이였다.

10여명의 아이들을 키우며 언제 한번 마음편히 발편잠을 자지 못한 그였다. 아이들을 남부럽지 않게 먹이고 입히기 위해 그가 얼마나 애를 썼던가. 그 마음, 그 수고를 보석처럼 품어주고 어머니의 심정으로 보살펴주는 살뜰한 손길들이 있었다.

그의 집에 땔감이 떨어질세라 각별히 마음쓰고 출장길에서 돌아오는 길로 찾아와 아이들을 키우는데 필요한 학용품과 생활용품을 안겨주군 하던 탄광의 지배인, 집에서 키우던 염소를 가져다주며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이면 얼굴색이 고와진다던 탄광의 당일군, 아이들의 옷이며 당과류를 들고 자주 찾아와 애로되는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다정히 이르군 하던 자작동사무소의 일군들…

정말이지 어머니가 되여주고 학부형이 되여준 그 고마운 손길들에 받들려 자식들의 마음속에는 한점의 그늘도 깃들수 없었다.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의 책임일군이 가져다준 텔레비죤수상기며 탄광의 일군들이 마련해준 첫날옷을 입고 꽃같은 모습으로 밝게 웃는 며느리들, 탄광에서 지어준 자식들이 첫 살림을 펼 새 집들과 동사무소의 일군들이 준비해준 살림도구들을 바라보는 박성진녀성의 두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우리 집뜨락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뜻을 참답게 받들어가는 일군들의 마음이 합쳐지는 큰 뜨락이랍니다.》

박성진녀성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생각했다.

우리 일군들이 사랑과 헌신으로 지켜가는 이런 뜨락들이 합쳐져 사회주의대가정의 큰 뜨락이 이루어지는것 아니랴.

본사기자 조경철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땀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평천구역인민위원회 일군들

지난 1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은 평천구역인민위원회 일군들의 가슴은 격동으로 세차게 높뛰였다.

신년사의 구절구절을 깊이 되새길수록 일군들은 숭고한 애국관과 헌신의 각오를 가지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여야 하며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말아지고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이 뜨겁게 안겨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을 사업의 절대적기준으로 삼고 오직 인민들이 바라고 좋아하는 일을 하여야 하며 무슨 일을 하든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구역인민위원회에서는 부서별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웠다.

구역인민위원회의 모든 일군들이 그러했지만 도시경영사업을 담당한 일군들도 사색을 거듭하며 일감들을 찾았다. 인민들의 생활과 깊이 밀착되여있는 일감들을 수행하는데 애로와 난관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누구에게서도 한숨소리나 맥빠진 소리를 들을수 없었다. 오히려 모두가 인민들이 바라고 좋아하는 일을 더 많이 할 열의에 넘쳐 일감들을 걷어안고 뛰고 또 뛰였다.

그러한 실례가 있다.

지난 4월 어느날 구역의 도로와 걸음길상태를 료해하던 이곳 일군들은 륙교1동가까이에 있는 어느 한 곳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장마철이면 물이 잘 빠지지 않아 사람들의 보행과 자동차들의 운행에 불편을 주고있는 곳이였다. 몇년전에 대책을 세우느라고 했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아직은 바쁜 일이 아니여서 제기된 일감들부터 먼저 처리하고 볼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의견도 없지 않았지만 부위원장 리의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문제를 그렇게 보지 않았다.

인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이라면 그것이 큰 문제이든 작은 문제이든 결코 스쳐보낼수 없다.

관점이 이렇게 서니 단순히 우수망이나 정리하는것이 아니라 그와 련결된 함도랑도 깨끗이 정리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 일이 품이 많이 드는 일이였지만 모두가 적극 찬성하였다.

전투가 시작되였다. 일군들은 컴컴한 함도랑안에서 전지불을 비쳐가며 불비한 개소를 찾아 바로잡으면서 한걸음한걸음 전진하였다. 그러는 일군들을 바라보며 함께 일하던 로동자들은 가슴이 뜨거워졌다.

누가 보는 사람도 없었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탓할 사람이 없었다. 일군들에게 한 로동자가 말하였다.

《일이 바쁘겠는데… 이런 일이야 우리에게 과업을 줘도 될텐데 그만두십시오.》

그러자 한 일군이 말하였다.

《이런 일을 하라고 우리 일군들이 있는것입니다.》

함도랑정리작업이 끝난 후에는 구역인민위원회의 일군들이 몇쳐나 수백m에 달하는 우수망을 깨끗이 가셔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날 평천2종합뽐프장의 한 설비가 뜻밖에 동음을 멈추게 되였을 때였다.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구역안의 주민들에게 먹는물을 원만히 공급하는데 지장을 줄수 있었다. 설비를 한시바삐 살리기 위한 조직사업이 진행된데 이어 전투가 벌어졌다. 리성민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현장에서 설비를 살리기 위한 방도를 찾은 후 어느 한 공장의 로동자들과 지혜를 합쳐가며 전투를 중단없이 벌리였다. 당조직의 지도와 구역적인 관심밑에 전투는 낮에 이어 밤에도 계속되였다. 모두가 휴식도 잠도 잊은듯싶었다. 구역의 책임일군들이 수시로 정형을 알아보며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갔다. 이런 노력이 있어 전투는 짧은 시간에 끝나게 되였다.

설비가 다시 힘찬 동음을 울리게 되였을 때 기쁨에 넘쳐있는 일군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생각하였다.

(인민의 심부름군이란 바로 저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구역안의 공원들에도 일군들의 남모르는 수고가 비껴있다. 인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기 위해 마음을 쓰며 장미, 스트로브스소나무, 느티나무, 추리나무 등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을 정성껏 심은 황윤학, 김성국동무들을 비롯한 일군들…

우리와 만난 리의철동무는 말하였다.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인민을 위해 헌신의 땀을 아낌없이 바쳐갈 결심입니다.》

인민을 위한 헌신의 땀, 참으로 좋은 말이였다.

본사기자 현경철

인민들의 교통상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새형의 무궤도전차생산을 다그치고있다.
―평양무궤도전차공장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고슬라비아방문 40돐기념 우리 나라 도서, 사진, 우표 및 수공예품전람회

슬로베니아에서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유고슬라비아방문 40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 도서, 사진, 우표 및 수공예품전람회가 6월 29일 슬로베니아 마리보시에서 개막되였다.

전람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선군의 기치높이 번영하는 우리 조국의 참모습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 우표들과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수공예품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전람회개막식에는 마리보시 시장과 슬로베니아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을 비롯한 슬로베니아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들 그리고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마리보시 시장 안드레이 프쓰트라베크는 연설에서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하신 40돐이 되는 뜻깊은 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서, 사진, 우표 및 수공예품전람회를 진행하는것은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하고 이번 전람회가 슬로베니아와 조선사이의 친선관계를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로 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슬로베니아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이고르 유리씨크는 마리보시민들뿐아니라 전람회장을 찾는 모든 참관자들이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업적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원산항에서 외국선박선원들의

회고모임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서거 21돐에 즈음하여 외국선박선원들의 회고모임이 4일 원산항에서 진행되였다.

참가자들은 원산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모임장소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빠나마선박 《씨 스타 7》호 선장, 선원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한평생은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거대한 업적을 쌓으신 절세위인의 빛나는 한생이였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근로하는 인민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인민들속에 들어가는것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신 **김일성**동지께서 생애의 전기간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다 바치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피어린 항일혁명전쟁과 조국해방전쟁에서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재적인 군사사상과 전략전술로 미일제국주의를 타승하고 력사적인 승리를 이룩하시였다고 말하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땅우에 자주의 사회주의강국이 일떠서고 민족번영의 찬란한 앞길이 펼쳐졌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김일성**동지께서 20세기 력사의 흐름을 자주의 길로 주도하시며 제국주의자들의 세계제패야망과 지배주의적책동을 짓부시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들께서 개척하시고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조선혁명은 오늘 존경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고 그들은 언급하였다.

연설자들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따라 조선인민이 강성국가건설에서 반드시 승리를 안아오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독자의 편지

사회주의보건제도가 제일입니다

지난 3월 저의 아들은 태여난지 여섯달도 되기 전에 합병증으로 함경북도소아병원에 입원하게 되였습니다.

아들의 체중은 정상수치에 이르지 못했고 발등은 심히 부어있었습니다. 부모인 우리들도 소생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맥을 놓고있었습니다.

그러한 때 원장, 기술부원장을 비롯한 병원의 의료일군들은 저의 아들을 무조건 소생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즉시 병원적인 협의회를 열고 치료대책을 세워나갔습니다.

저의 아들을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료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담당의사선생님을 비롯한 병원의 의료일군들과 간호원들은 고가약을 투입하고 영양공급을 잘해주면서 아들의 건강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명절날, 휴식일도 따로 없이 저의 아들곁을 떠나지 않고 밤을 꼬박 밝히던 의료일군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의료일군들의 지극한 정성에 의해 저의 아들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였습니다. 완쾌된 저의 아들을 품에 안고 소리없이 눈물을 흘리던 담당의사선생님과 간호원들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어랑군 무계리 37인민반
권향숙

7월 중순까지 예견되는 기상조건과 농사대책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 물절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영농물자를 원만히 보장하며 생산조직과 지도를 실정에 맞게 하여 불리한 자연조건을 극복하고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월 중순에는 덥고 습하면서 지속적으로 비가 내리는것과 같은 장마철날씨의 특성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을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나 국부적인 지역들에서 산발적인 소낙비와 폭우를 동반한 재해성기상현상들이 나타날것으로 본다. 중순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으며 중순평균기온은 평년보다 약간 높을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논벼농사에서는 어린 이삭이 잘 자라도록 이삭비료주기와 논물관리를 잘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이삭비료주기를 잘하여야 한다. 이삭비료는 이삭당 알수, 여문률, 천알질량 등 전반적인 소출구성요소형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비료이므로 기상조건과 품종의 특성, 생육상태를 고려하여 과학적으로 주도록 하여야 한다. 품종의 특성과 생육상태를 고려하여 이삭비료를 주는 시기와 량을 바로 정하여야 한다. 질소비료가 적은 단위들에서는 실정에 맞게 대용비료를 생산하여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지수가 지나치게 많거나 잎이 늘어지고 잎색이 진한 포전, 모내기를 늦게 한 포전들에서는 이삭비료량을 줄이거나 주는 시기를 늦추어야 한다.

이삭의 발육상태에 맞게 논물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이삭이 형성되는 시기에 토양물기가 부족하면 이삭발육에 심한 부정적영향을 주게 되므로 7월 5～10일경부터 토양이 마르지 않도록 얕은물대기와 간단물대기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논벼생육이 약한 논에서는 얕은물대기를 진행하며 생육이 왕성한 논, 뿌리썩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논에서는 간단물대기와 포화수식물대기를 진행하여야 한다. 물을 대기 어려운 논에서는 이 시기에 토양물기를 80%이상 보장할수 있도록 물주기대책을 세워야 한다. 물을 대지 못하고 모를 낸 포전들에서는 김잡이대책을 강하게 세워야 한다. 손김매기를 3회이상 진행하여야 하며 살초제를 리용하여 김을 제때에 잡아야 한다. 농약적심제를 리용하여 농약사용량을 줄이면서 김잡이효과를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벼대벌레를 비롯한 병해충피해를 받지 않도록 농약치기를 잘하여야 한다.

강냉이농사에서는 이삭비료주기와 개꼬리뽑기, 꽃가루묻혀주기를 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삭비료주기를 다그쳐 끝내야 한다. 비료가 적은 조건에서 비료주기를 질적으로 진행하며 비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비료주기방법을 적극 적용하여야 한다. 개꼬리를 뽑아주면 개꼬리에 가던 영양물질이 모두 이삭이 자라는데 돌려지게 되므로 가물과 장마를 비롯한 불리한 조건에서도 수강냉이가 적어지고 이삭당 알수가 늘어나게 된다. 개꼬리뽑기는 고갱이속에서 개꼬리의 끝부분이 나와 보이기 시작할 때 하여야 한다. 개꼬리뽑기는 연약한 개체들로 선택적으로 할수 있지만 밭전체를 대상으로 50%정도의 범위에서 진행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비침률이 높고 가물이 심한 조건에서는 60～70%의 범위에서 할수 있다. 생육이 좋은 강냉이밭에서 꽃가루를 모아 그날로 수염에 묻혀주어 수정률을 높여야 한다. 꽃가루묻혀주기는 수정이 되지 않아 수염이 길게 자란 이삭을 골라 하여야 한다.

감자농사에서는 평지대에서 앞그루감자수확을 빨리 끝내고 뒤그루감자종자준비를 잘하며 고지대에서는 감자밭김매기와 북주기, 잎덧비료주기를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뒤그루감자종자로 리용하는 경우 기계적손상이나 병해충피해를 받지 않은 감자를 골라 건조시킨 다음 바람이 잘 통하는 방안이나 창고에 덕대를 매고 2～3알두께로 펴놓아 싹틔우기를 하여야 한다. 고지대에서는 김매기와 북주기를 4～5회 진행하며 역병을 비롯한 병해충피해를 막아야 한다.

콩농사에서는 원그루콩포전들에서 습해와 넘어짐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뒤그루콩포전들에서 김매기와 후치질을 잘하여야 한다.

콩포기가 무성해져 고랑을 메우기 전에 3회후치질을 끝내며 밭머리와 포전안에서 물빼기도랑치기를 잘하여 습해를 막도록 하여야 한다. 콩이 싹트기 전에 살초제로 토양처리를 진행하여 김을 잡아야 한다. 홑잎시기에 애벌김매기를 진행하고 그후 10일간격으로 2회, 3회김매기를 하여야 한다.

농작물생육예보지휘부

교육자들을 위해 바치는 뜨거운 진정

강동군 대리종합상점 봉사자들

몇해전이였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를 실시할데 대한 소식을 격동속에 접한 강동군 대리종합상점 지배인 지동숙동무의 생각은 깊었다. 지금껏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지역안의 교육자들에게는 눈길을 돌리지 못한 자신이 죄스러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고 하는것도 미래를 사랑하고 후대들을 위하여 투쟁하라는 것입니다.》

어느날 지동숙동무는 당세포비서 박일남동무를 만나 마음을 터놓았다.

《지금껏 제가 미처 관심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교육자들을 위해 무거운 짐을 더 져야 할가봅니다.》

지동숙동무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당세포비서는 이렇게 응해나섰다.

《교육자들을 위한 일이 왜 지배인동지 혼자일이겠습니까. 우리모두가 자식들을 가진 학부형들인데 성의껏 잘 도와줍시다.》

지배인의 결심을 봉사자들도 적극 지지해나섰다.

지동숙동무는 먼저 봉사자들과 함께 수십명이나 되는 학교교원들의 생활형편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이어 교육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봉사계획이 세워졌다.

집짐승기르기능력을 종전보다 배로 늘이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였다. 지동숙동무는 세멘트와 골재를 비롯한 자재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였다. 녀성들이 대다수인 조건에서도 전영실, 오영애, 박복실, 윤금순, 리영실동무를 비롯한 종업원들이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일을 하였다. 불과 몇달사이에 집짐승우리가 더 크게 건설되고 돼지, 토끼 등 집짐승마리수가 늘어났다. 하지만 이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구들골에 원료기지를 확장하기 위한 사업도 통이 크게 벌려 알곡과 갖가지 남새들을 심고 가꾸었다. 그 나날 일은 헐치 않았지만 그만큼 보람은 컸다.

지동숙동무와 종업원들은 이렇게 애써 마련한 물자들을 교육자들에게 봉사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지난해에만도 이곳 봉사자들은 기름, 간장, 맛내기와 당과류를 비롯한 갖가지 식료품들과 빨래비누, 치약, 치솔 등 생활필수품들을 교육자들에게 공급해주었다. 그리고 계기때마다 내의류와 밥가마, 우산 등 가정용품들도 정상적으로 공급하였다.

지동숙동무와 봉사자들은 대리구유치원을 잘 꾸려주기 위한 사업에도 특별한 관심을 돌리였다.

하얀 벽체들과 정성껏 깔아놓은 문양고운 레자, 복도를 따라가며 아이들의 동심에 맞게 그려놓은 여러가지 그림들, 교양실에 갖추어진 자석칠판과 이불장마다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색갈고운 이불들…

올해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이곳 봉사자들은 갖가지 식료품을 마련하여 또다시 교육자들에게 보내주었다. 그들의 수고를 두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교육자들에게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응당 해야 할 일을 했을뿐입니다.》

이들처럼 교육자들을 위하여 진심을 바쳐가고있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 조국의 미래가 밝고 창창한것이다.

본사기자

민족단합의 길에 쌓으신 절세위인의 불멸의 업적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속에 온 겨레는 한평생 오로지 나라의 통일과 겨레의 행복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진두에서 이끌어오신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3대헌장을 마련하시여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조국통일의 강력한 주체를 이루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외세의 간섭을 끌장내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앞당겨나갈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닦으시였다.》

조국통일을 위한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사는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하나로 잇고 삼천리강토우에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울 그날을 앞당겨오기 위한 불굴의 의지, 완강한 실천으로 빛나는 애국의 력사이다.

민족대단결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 구현하여오신 근본원칙이다. 주체의 민족대단결사상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훌륭히 구현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 뜨거운 민족애가 있어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은 력사의 험난한 시련을 헤치며 줄기찬 전진을 이룩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멸의 민족대단결지침을 마련하시여 온 겨레에게 조국통일위업을 힘차게 떠밀어나갈수 있는 백승의 보검을 안겨주시였다.

조국통일위업은 외세가 강요한 분렬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전민족의 대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다. 사상과 리념, 정견과 주의주장이 각이한 민족의 모든 성원들을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묶어세우자면 온 겨레의 공감과 지지를 불러일으키는 단합의 리념이 있어야 한다.

외세가 강요한 민족분렬의 비극으로 하여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있는 엄혹한 현실은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단합의 리념을 절실히 요구한다.

사상리론의 거장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시여 독창적인 민족대단결사상을 제시하시고 대단결위업실현의 교귀한 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조국통일5대방침,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등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온 겨레가 사상과 리념, 정견과 주의주장,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자리에 내세우고 굳게 단합할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주체적인 민족대단결사상과 로선의 빛나는 구현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의 민족대단결사상과 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단합의 위력으로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정신적무기를 가지게 되였으며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위업을 힘차게 떠밀어나갈수 있게 되였다.

민족대단결의 위력으로 승리해온 조국통일운동의 자랑찬 년대기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민족대단결사상과 로선의 정당성, 그 불패의 위력에 대한 뚜렷한 과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없이 고결한 민족애와 넓은 포옹력을 지니시고 민족단합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조국통일운동을 명실공히 전민족적인 애국운동으로 확대강화시키시였다.

조국통일은 개별적인 계급이나 당파의 리익을 위한것이 아니라 민족공동의 리익을 위한 애국위업이며 온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만 떠밀어나갈수 있는 민족사적과제이다.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온 겨레의 적극적인 지지성원과 헌신적인 분투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위업을 령도하시는 첫 시기부터 민족의 대단결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여기에 커다란 관심을 돌려오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밑에 주체37(1948)년 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는 통일애국의 기치아래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는 력사적인 민족적회합이였다. 민족분렬의 위기가 무겁게 드리웠던 엄중한 시기에 극소수의 민족반역자들을 제외한 북과 남의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들의 폭넓은 회합이 마련되고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애국투쟁을 벌리게 된것은 어버이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로선의 빛나는 승리였다.

조국통일위업의 초행길에서 이룩된 민족대단결의 고귀한 경험이 있어 격폐상태에 있던 북남사이에 폭넓은 대화와 협상의 돌파구가 열릴수 있었고 미제와 그 추종들의 악랄한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전민족적범위에서 자주통일과 민족단합의 기운이 부쩍 고조될수 있었으며 북과 남, 해외의 3자련대, 3자련합이 강화될수 있었다.

조국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정견과 주의주장은 물론 불미스러운 과거도 불문에 붙이시고 따뜻이 안아 통일애국의 길에 내세워주신분이 바로 넓은 도량과 크나큰 포옹력을 지니신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그 자애로운 인덕의 손길에 이끌려 어제날 죄많은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참된 애국의 길에서 생을 빛내이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특색있는 기여를 할수 있었고 나라와 민족이 기억하는 애국인사로 영생할수 있게 되였다. 온 겨레를 한품에 안아 믿어주고 내세워주는 위대한 어버이의 따사로운 사랑은 통일애국의 강력한 주체를 마련하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범위에로 확대발전시킨 원동력이였다.

정녕 돌이켜보면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를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인 민족대단결의 전통은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애국헌신의 귀중한 결실이다.

우리 민족의 대단결위업은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이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우리민족끼리기치따라 전진하는 새로운 력사적단계에 올라섰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뜨거운 념원과 숭고한 한생이 비껴있는 민족대단결위업, 조국통일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는것은 우리 세대에 맡겨진 성스러운 민족적의무이다.

오늘 조국통일위업의 진두에는 우리 민족이 낳은 또 한분의 백두산절세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서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로선을 그대로 계승하시여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애족의 령도를 받들고 우리민족끼리기치밑에 굳게 뭉쳐 나아감으로써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것이다.

은 정 철

얼빠진자의 푼수없는 넉두리

피뢰합동참모본부 의장 최윤희가 악질대결광신자로서의 자기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고있다.

며칠전 국제체육경기가 진행될 광주에 코를 들이민 이자는 《북이 경기를 방해》할 목적으로 《테로뿐아니라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터무니없는 나발을 불어대면서 《대비태세강화》에 대해 피대를 돋구었다.

그야말로 피해망상증에 걸린 정신병자, 동족에 대한 모해에 이골이 난 미치광이의 추태가 아닐수 없다.

피뢰들이 그 무슨 《테로》와 《도발》에 대해 떠들어대고있는것은 참으로 해괴한짓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입은 비뚤어졌어도 주라는 바로 불라는 말이 있다.

남조선에서 국제체육경기가 벌어질 때마다 우리가 특색있는 경기응원과 다채로운 활동으로 경기대회를 보다 흥성거리게 하여 대회의 성공적개최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는것은 내외가 공인하고있는 사실이다.

굳이 문제를 세운다면 왜 남조선당국이 이번 국제체육경기를 앞두고 외세와 함께 우리를 반대하는 정치군사적도발을 강화하면서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첨예화시키고있는가 하는것이다.

체육경기와 대결소동은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다.

동족에 대한 모해와 북침전쟁도발을 노린 남조선괴뢰들의 반공화국대결소동이 평화와 친선을 기본리념으로 하는 국제체육경기와 완전히 배치되며 그 분위기를 심히 해치는 분별없는 망동이라는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것이다.

반공화국도발과 전쟁연습소동으로 체육경기를 방해하는 장본인은 괴뢰들자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윤희역도가 그 누구의 《테로》니, 《도발》이니 하고 악담질을 한것은 괴뢰패당이 신성한 체육을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악용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최윤희역도의 이번 망발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영상을 흐려놓으면서 대결분위기의 고취로 남조선 각계에서 높아가는 북남관계개선기운을 가로막으려는 파렴치한 술책이다.

최근 괴뢰집권세력은 북남관계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우리에 대한 그 무슨 《강한 압박》과 《제재의 실효성》을 노린 외세와의 《대북공조》 강화에 열을 올리면서 조선반도정세를 일촉즉발의 위기에로 몰아가고있다.

괴뢰패당이 유엔 《북인권사무소》라는것을 서울에 한사코 끌어들인데 이어 합동상륙훈련, 합대종합전투훈련을 비롯한 각종 명목의 전쟁연습을 뻔질나게 벌려놓고있는것은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킴으로써 대화와 평화의 흐름을 가로막고 외세와 야합하여 우리를 해치기 위한 엄중한 도발이다.

하기에 지금 내외여론은 가뜩이나 첨예한 북남관계를 전쟁국면에로 몰아가는 괴뢰들의 분별없는 대결망동을 준렬히 단죄규탄하면서 남조선당국이 긴장완화와 평화, 북남관계개선에 나설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괴뢰당국의 반공화국대결자세는 구태의연하다.

최윤희역도가 이번에 뚱딴지같이 국제체육경기와 관련한 북의 《테로》, 《도발》설을 들고나온것은 사태악화를 부추기는 고의적인 책동으로서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동족을 걸고드는 악의에 찬 모략나발을 또다시 불어대며 반공화국도발에 미쳐날뛰는 괴뢰패당의 추태는 절대로 변할수 없는 그들의 추악한 대결적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보이고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평화를 사랑하며 민족의 운명이 달린 북남관계를 소중히 여긴다.

하지만 괴뢰패당이 우리를 미친듯이 헐뜯으며 정치군사적도발에 피를 물고 날뛰는데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다.

천하의 못된짓은 하늘이 알고 천벌을 내린다고 하였다.

괴뢰패당이 대결정책의 쓰디쓴 실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우리를 모해하고 여론을 오도하며 반공화국도발에 계속 열을 올린다면 무자비한 복수의 불벼락을 면치 못할것이다.

조 남 수

7.4공동성명은 우리 민족의 영원한 통일헌장, 통일대강

남녘인민들 격찬

자주, 평화통일에 대한 민족의 열망이 나날이 높아가고있는 오늘 남녘인민들의 가슴속에 더욱 뜨겁게 자리잡고있는것은 력사적인 7.4공동성명의 발표로 조국통일3대원칙을 제시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끓어오르는 경모의 정이다.

진보운동단체들은 7월 4일은 남북이 분렬이후 처음으로 민족통일의 대원칙을 토의하고 조국통일의 큰 기둥을 세운 날이라고 하면서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밝혀진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통일을 위해 남, 북, 해외의 온 겨레가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가를 명백히 가르쳐주었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1972년 5월 3일 남북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에 간 남측대표를 접견하신 석상에서 통일문제를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할데 대한 조국통일3대원칙을 밝히시였다.

그로부터 두달후인 7월 4일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근본핵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이 세상에 발표되였다.

이것은 수십년동안 격폐되였던 남북관계에 첫 파렬구를 내고 통일의 좌표를 높이 세운 력사적 패거였으며 남북이 분렬사상 처음으로 민족공동의 통일원칙에 합의한 특기할 사변이였다.

남조선언론들이 7.4공동성명의 발표를 두고 《새 민족사의 서광》, 《자주통일의 거보》라고 대서특필하였으며 통일운동가들은 《7.4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옳바른 투쟁좌표를 가지고 통일운동을 힘차게 벌려올수 있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가장 정당한 통일강령이다.》고 격정의 목소리를 터쳤다.

현대사의 한 연구원은 《7.4공동성명의 발표는 김일성주석의 조국통일업적중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 불멸의 업적》이라고 하였으며 통일운동가 리영철은 조국통일3대원칙을 유산으로 안겨주신 주석님의 업적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인천의 한 재야인사는 위인의 옳바른 사상과 령도업적은 위인에 의해서만 계승되고 빛나게 구현된다고 하면서 《7.4공동성명을 심장에 새기시고 조국통일3대원칙을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과 함께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해주시였다고 칭송하였다.

남녘땅 이르는 곳마다에서 울려나오고있는 《쉬임없는 6.15실천으로 7.4공동성명의 3대원칙 구현하자!》, 《조국통일 3대원칙, 6.15공동선언이 밝힌 통일의 시간표를 앞당기자!》 등의 구호에는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이 뜨겁게 반영되여있다.

한 통일운동단체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이 땅에서 군사적긴장이 고조되고 민족의 자주권이 위협당하는 오늘의 현실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더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지금 이남에서 파쇼세력이 7.4공동성명리행에 난관을 조성하고있지만 그 원칙은 통일운동의 발전을 이끌고있다.

우리 이남민중은 민족공동의 통일헌장, 통일대강인 7.4공동성명이 밝혀준 원칙에 따라 조국통일실현의 길에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에서 피뢰집권층내부의 대립과 갈등이 첨예화되고있어 정국이 더욱 혼란속에 빠져들고있다.

그 발단은 집권자의 독단과 전횡이다. 얼마전 피뢰집권자가 여야정치세력들이 합의하여 지난 5월말에 통과시킨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한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야당인 새정치민주련합은 《국회》를 무시하고 정쟁을 부추기는 집권자의 《국회법개정안》 거부권행사는 《대국민선전포고》라고 규탄하면서 강력히 반발해나섰다. 이 당대표 문재인은 집권자가 자기의 무능으로 초래된 사태의 책임을 《국회》에 넘겨씌우고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야당과 〈국회〉와 싸우자는것이고 민주주의와 싸우자는것》이라고 격분을 표시하였다.

《새누리당》안에서도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친박계와 비박계사이에 험악한 싸움이 벌어지고있다. 친박계는 청와대의 요구에 복종해야 한다고 고아대고있으며 비박계는 집권자의 거부권행사와는 관계없이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언론들은 집권자가 《〈국회〉에 전면전을 선포하고 여당지도부에 직격탄을 날리면서 정치권이 혼란에 빠져들고있다.》고 전하고있다.

이번에 피뢰집권자가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개정안》에는 남조선에서 오래전부터 집권자의 전횡을 막기 위해 론의되여오던 문제인 《정부시행령》을 수정할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것이 피뢰집권자의 심기를 건드린것이다. 남조선에서 《시행령》이라고 할 때 그것은 집권자가 어떤 《법안》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내리먹이는것으로서 독재통치에 적극 악용되여왔다. 그것이 현 피뢰집권자의 독단과 전횡이 극도에 달하면서 더욱 문제시되고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서울 송파구세모녀자살사건의 발생이후 피뢰당국이 아무런 개선대책이나 방도도 없는 《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을 발표한 사실과 《세월》호사건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세월〉호특별법시행령》을 들고나온 사실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결국 남조선에서는 피뢰집권자가 고안해내는 반인민적인 《시행령》을 수정, 폐기할것을 요구하는 각계의 투쟁이 고조되게 되였으며 그것이 이번의 《국회법개정안》 채택에로 이어진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뢰집권자는 자기의 독재통치에 방해가 된다고 하여 《행정부의 권한침해》니 뭐니 하는 당치않은 구실을 내대며 오만하게도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망동을 부리였다. 그러니 야당세력이 민주주의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라고 들고일어나지 않을수 있겠는가.

《국회법개정안》 거부권행사와 관련한 사태는 권력욕에 환장하여 서로 물고뜯는 피뢰보수집권세력의 썩은 병집이 곪아터진 결과이기도 하다.

최근 피뢰집권층내부에서는 친박계와 비박계사이의 치렬한 권력싸움이 이어져왔다.

특히 남조선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특대형부정부패사건인 성완종사건으로 집권층내부의 모순과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사건초기에는 청와대 전, 현직 비서실장을 비롯한 집권자의 측근들의 부정부패죄행이 드러나 여론화되였지만 피뢰집권자가 그 무슨 《성역없는 수사》를 지시한 이후 검찰당국이 비박계인 경상남도지사 홍준표와 이전 《총리》 리완구만을 불구속기소하였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친박은 무죄, 비박은 유죄》, 《친박이 아닌 홍준표와 이미 버린 카드인 리완구만 죽게 되였다.》고 조소하였다. 집권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모멸감을 느낀 《새누리당》내의 비박계는 《시행령》 수정요구를 법화하는 《국회법개정안》 채택에 합세해나섰다. 여기에서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류승민이 한몫했다고 한다.

《국회법개정안》 통과와 관련하여 피뢰집권자가 여당의 《원내사령탑은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야단친것도 바로 그때문이다.

집권자가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새누리당》내의 친박계는 비박계인 원내대표 류승민을 몰아내기 위한 총공세에 나섰다.

집권자의 호통질에 기가 질린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이 류승민파 《국회법개정안》을 폐기하기로 합의하고 류승민이 집권자에게 공개사과를 하였지만 청와대와 친박계는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 《책임지는 방식은 본인이 가장 잘 알것》이라고 하면서 류승민의 사퇴를 끈덕지게 강박하고있다.

3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어느 한 친박계인물은 류승민의 사퇴를 다시 요구하였다. 그에 대해 류승민을 편드는 《새누리당》 대표측이 맞서면서 갈등은 또다시 폭발했다.

한편 그보다 앞서 《새누리당》 출신인 피뢰국회의장은 집권자의 야단법석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요구하는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남조선언론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보도하면서 《새누리당》이 《당청갈등과 계파분란, 여야대치》의 《3대악재》에 갇혔다, 자칫하면 당상층부가 와해될 가능성도 있다고 평하고있다.

집권자와 그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주대없이 놀아대는 《새누리당》의 처사에 분노한 새정치민주련합은 여당을 《청와대의 시녀, 머슴》, 《박근혜의 사설정당》으로 야유조소하면서 모든 《국회》 일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것을 선포하였다.

지난 3일 이 당대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자신들이 통과시킨 《국회법개정안》을 폐기하겠다고 하고 자신들이 선출한 원내대표를 쫓아내기 위해 추태를 부리고있다고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난하였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민심의 요구대로 6일에 있게 되는 《국회법개정안》 표결에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회법개정안》 표결이후 남조선정국이 또다시 요동치게 될것은 뻔하다.

인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대신 당리당략과 독재통치를 위한 개싸움질로 세월을 보내는 피뢰집권세력에 대해 인민들은 저주와 분노를 터치고있다.

본사기자 리 성 호

전횡과 독단으로 심화되는 정국혼란

무덤길을 재촉하는 반공화국대결망동

얼마전 우리 공화국이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5돐을 맞으며 정부성명을 발표한것은 일촉즉발의 위기국면에로 치닫고있는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수습하려는 확고한 의지로부터 출발한것이다.

만일 남조선괴뢰들에게 북남관계의 운명에 대한 책임감이 꼬물만큼이라도 남아있었더라면 우리의 애국애족적제안을 심중히 대하고 정책전환의 길에 나섰어야 옳다.

그러나 피뢰패당은 우리의 선의와 아량을 뿌리치고 한사코 대결의 길로 질주하고있다. 대결미치광이들은 매일과 같이 《북핵, 미싸일위협》과 《인권》 문제에 대해 줴쳐대면서 미국상전의 부추김밑에 가소롭게도 《금융제재》놀음까지 벌리며 우리에게 도전해나서고있다.

괴뢰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와 내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유엔 《북인권사무소》를 서울에 끌어들인것은 동족대결에 미쳐도 더럽게 미친 역적무리의 추악한 몰골을 다시한번 여실히 드러내보여주고있다.

북남관계가 더이상 수습할수 없는 최악의 파국에로 치닫고있는 엄중한 사태를 지켜보며 우리 겨레는 반공화국대결의 광풍을 사납게 일구는 괴뢰집권세력에 대한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다.

괴뢰패당의 광란적인 반공화국대결소동은 동족에 대한 병적인 거부감과 적대의식의 뚜렷한 발로이다.

개꼬리 삼년 가도 황모 못된다는 말이 있다. 괴뢰들의 대결광증은 죽어서도 고칠수 없는 가장 집요하고 악랄한것이다.

현 괴뢰집권세력은 《신뢰》니 뭐니 하며 마치도 저들에게 악화된 북남관계를 바로잡을 의사나 있는듯이 너스레를 떨었다. 하지만 그것은 저들의 대결적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한갖 미사려구에 불과하였다.

그들의 골통에는 오로지 반공화국제재와 압력소동의 강화로 우리를 무장해제시켜 뿌리깊은 북침야망을 실현해보려는 흉심만이 꽉 차있다.

괴뢰패당은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두길전략》을 제창하면서 《북핵포기》를 미친듯이 떠들어댔는가 하면 《대북정책》의 전략적목표를 《북변화》와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로 정하고 그 실현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어리석게도 경제적제재와 정치군사적압력을 강화하면 우리가 주저앉을것이라고 타산한 괴뢰패당은 외세를 등에 업고 반공화국고립압살소동에 갈수록 열을 올리였다.

그것은 괴뢰들이 외세의 반공화국핵소동, 《인권》 소동에 맞장구를 치면서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거부하고 대결소동에 매달린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남조선에서 현 괴뢰정권의 출현이후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의 기회가 여러차례 마련되였다.

하지만 그때마다 괴뢰들은 《대화를 위한 대화는 없다.》느니, 《선핵포기의 지부터 보여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떠벌이면서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악랄한 반공화국도발로 그것을 완전히 파괴해버리였다.

괴뢰패당이 남조선 각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원칙》과 그 누구의 《책임》을 운운하며 《5.24조치》의 철회를 한사코 거부하고있는것도 동족대결소동의 강화로 골수에 배긴 북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남조선괴뢰들이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는 반공화국도발의 본질은 체제대결이며 그 목적은 북침전쟁이다.

동족에 대한 무조건적인 불신감과 극단적인 적대심에 물젖어있는 괴뢰패당의 대결적정체는 그들이 미국과 함께 대규모적인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뻔질나게 감행한데서도 날낱이 드러났다.

북침합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군사적압박과 대결정책실현을 위한 기본수단으로 삼고있는 괴뢰들이 미국과 함께 우리의 자위적억제력강화조치를 《도발》과 《위협》으로 걸고들며 불장난소동의 도수를 날로 높임으로써 북남관계는 헤여나올수 없는 파국에로 줄달음치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발발의 위험은 극도로 고조되고있다.

현 북남관계의 파국적상황은 동족에 대한 체질적인 적대감에 사로잡힌 괴뢰패당의 본색은 추호도 변할수 없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의 광란적인 반공화국대결소동은 심각한 통치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불순한 계책이다.

집권위기가 심화될 때마다 반공화국대결에서 출로를 찾는것은 력대 괴뢰통치배들의 상투적수법이다. 현 괴뢰집권세력도 다를바 없다.

남조선에서 현 보수 《정권》의 위기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동족대결정책과 반인민적악정, 《유신》독재의 부활로 북남관계와 남조선사회전반을 총체적인 파국에로 몰아넣은 보수집권세력에 대한 민심의 분노는 하늘에 닿고있다.

더우기 괴뢰당국의 무능과 반인민적처사로 남조선 전지역을 휩쓸고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전염병사태는 각계층 인민들의 반 《정부》투쟁을 한층 고조시키고있으며 이로 하여 보수패당은 최악의 통치위기에 빠져 허우적거리고있다.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힌 반역패당은 분노한 민심의 이목을 딴데로 돌려 최악의 집권위기를 수습하고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북남관계를 극도로 긴장시키면서 전쟁광기를 부리고있다.

독단과 전횡, 부패무능과 반인민적악정, 사대매국과 동족대결로 민심을 완전히 잃고 벼랑끝에 내몰린 괴뢰집권세력은 통치위기수습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잡도리이다.

하지만 반공화국대결은 출로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멸의 길이다. 괴뢰집권세력이 동족을 적대시하며 반공화국대결정책을 계속 추구한다면 대중적인 항거만을 불러올것이다.

추악한 정치적목적을 위해 북남관계를 고의적으로 악화시키는 반역무리를 단호히 징벌하려는것은 우리 천만군민의 확고한 의지이다.

독초는 뿌리채 뽑아버려야 하고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찜질이 제격이다. 남조선괴뢰들이 북남관계와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그 누구의 《핵포기》와 《변화》를 꾀하며 반공화국대결에 기승을 부리는 한 북남사이의 무력충돌과 전쟁은 피할수 없다.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을 가하며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대답해나서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기질이고 배짱이다.

빈말을 모르는 우리 군대의 강위력한 모든 타격수단들이 지금 침략과 대결의 아성을 빠짐없이 멸적의 조준경안에 집어넣고 명령만을 기다리고있다.

무모한 반공화국대결소동에 미쳐날뛰고있는 괴뢰패당이 갈 곳이란 력사의 무덤뿐이다.

심 철 영

현 《정권》이 퇴진할 때까지 투쟁할것이다

남조선단체가 주장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련대(코리아련대)가 6월 29일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당국의 파쇼탄압분쇄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는 악명높은 황교안이 《국무총리》로 되자마자 남조선에서 새로운 폭압선풍이 불어치고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진보단체성원들에 대한 체포령장발부와 무더기기소 등에 매달려온 공안당국이 이번에 코리아련대 성원들에게까지 소환장을 발부하며 탄압에 돌아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이번 폭압의 특징은 현 《정권》에 맞서 투쟁한 단체들과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겨냥하여 보복적으로 감행된다는데 있다고 단체는 주장하였다.

당국이 메르스사태로 인한 민심의 항의를 새로운 공안탄압으로 모면해보려 하고있다고 단체는 규탄하였다.

단체는 코리아련대 성원들에 대한 반민주적, 반인권적인 소환조사를 전면거부한다고 언명하였다.

당국의 모든 불법행위와 조치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현 《정권》이 퇴진할 때까지 선봉에서 용감히 투쟁할것이라고 단체는 선언하였다.

나아가 현 《정권》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비호하는 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투쟁도 줄기차게 벌려나갈것이라고 하면서 단체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어둠은 빛을 이길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수 없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살하는 현 《정권》의 퇴진과 자주권을 유린하는 미군의 철수는 필연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을 위한 정의의 투쟁에서 언제나 앞장설것이다.

미제침략군의 탄저균반입사건진상규명을 요구

남조선의 대학생련합이 2일 서울 미국대사관주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미제침략군의 탄저균반입사건을 규탄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남조선에서 미군이 2013년부터 《쥬피터계획》에 따른 생화학무기반입, 실험을 감행해온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들은 이번에 미군이 탄저균을 끌어들인 곳으로 폭로된 오산미공군기지주변에는 수많은 주민들이 밀집되여 살고있다고 하면서 이런 곳에 치사률이 높은 탄저균을 반입한것은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단죄하였다.

미군이 탄저균반입으로 남조선민중의 생명을 엄중히 위협하고도 그 사실을 은폐해왔으며 지금도 책임을 회피하고있다고 그들은 규탄하였다.

미군의 탄저균반입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이어 단체는 탄저균반입으로 남조선민중의 인권을 침해한 미국집권자의 사과와 탄저균실험에 대한 진상규명, 굴욕적인 남조선미국 《행정협정》 개정을 요구하는 항의문을 랑독하고 그것을 미국대사관측에 들이댔다.

【조선중앙통신】

절대로 막을수 없는 력사의 흐름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주권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간섭과 군사적침략책동으로 하여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엄중한 위험이 조성되고있다. 특히 조선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은 항시적인 긴장이 떠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변하고있다.

그럴수록 더욱 강렬해지는것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류의 지향과 념원은 더욱 강렬해지고있으며 자주와 정의의 길로 나아가는 력사의 흐름은 그 누구도 막을수 없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이 말씀은 사회적인간의 자주적본성과 그 실현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 그 승리의 정당성과 오늘의 시대적흐름에 대한 명확한 분석에 기초하여 내린 과학적정의이며 인류자주위업실현에서 언제나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명언이다.

제국주의자들이 최후발악하며 침략과 략탈에 미쳐날뛸수록 더욱 강렬해지는것은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류의 지향과 념원이다.

자주와 정의의 길로 나아가는 력사의 흐름은 그 누구도 막을수 없다.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려는것이 바로 사회적인간의 속성인 자주성이다. 인간이 자주성을 빼앗기면 사람답게 살수 없으며 사회적인간으로서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어떤 환경과 조건이 조성되여도, 정세가 아무리 변하여도 달라질수 없는것이 사회적인간의 본성, 인민대중의 본성적요구인 자주성이다.

자주성은 또한 나라와 민족의 생명으로 된다. 매개 나라는 마땅히 정치적자주성을 견지하여야 하며 그것은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권리이다.

제국주의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는 인류의 지향과 념원이 더욱 강렬해지고 있는것으로 하여 력사의 흐름은 제국주의자들의 기도대로가 아니라 자주와 정의의 길을 따라 나아가고있다. 이 길을 막을자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자주와 정의가 언제나 승리한다는것은 지난 시기의 력사적과정이 잘 보여주고있다.

랭전종식후 미국은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면서 저들이 주도하는 일극화세계를 수립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그들은 힘의 균형이 파괴되고 군사적경쟁대상이 없어진 변화된 국제적환경속에서 침략적군사력과 경제력의 우세에 의거하여 모든 나라들을 신식민주의지배체제에 얽어매려고 하였다. 미국에 고분고분하지 않고 엇서나가는 약한 나라들에는 불소나기를 쏟아붓고 경제적혼란에 빠져 허덕이는 나라들은 《원조》미끼로 교묘하게 홀리면서 끌어당겼다. 대국들에 대하여서는 나토와 같은 군사뿔럭들을 확대강화하는 방법으로 포위환형성을 다그치면서 견제, 압박하고 위협하였다. 미국이 그처럼 악을 쓰며 날뛰였지만 일극세계화책동은 실패를 면치 못하였다. 그것은 자주와 정의에로 나아가는 력사의 흐름을 거꾸로 돌려세우려는 시대착오적인 망동이기때문이였다.

미국의 일극세계화책동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많은 나라들의 반대배격에 부딪쳤다. 자주화를 지향하는 많은 나라들은 국제무대에서 자기들의 발언권과 지위를 높이면서 특정한 렬강의 지배적지위와 독점권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해나섰다. 발전도상나라들은 호상간의 관계를 밀접히 하는 한편 자기 내부와 주위에 뻗치는 미국의 지배주의적마수를 막기 위한 활동을 벌렸다. 여러 대륙, 지역들에서 대륙적, 지역적인 정치, 경제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들을 창설하고 지역단일화폐들을 내왔으며 독자적으로 혹은 련합하여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의 세력권확대를 막기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였다.

오늘 국제무대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의 지위는 비상히 강화되고 그 역할은 매우 높아지고있다. 문명과 발전을 자랑하며 허세를 부리던 서방나라들은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에 빠져들게 되자 지난 시기 차요시하던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력에 의거하지 않으면 안되고있다.

많은 발전도상나라들과 함께 지역별, 대륙별기구, 동맹들이 독자적인 극들을 형성하기 위해 더욱 줄기차게 투쟁하고 있다. 그로 하여 미국의 세력권은 현저히 좁아지고 지배적지위는 날이 갈수록 허물어지고있다. 여러해전 미중앙정보국은 정부에 제출한 《2015년 세계의 면모》라는 문건에서 《미국이 세계의 주도권을 쥐고있을수는 있지만 그 가치는 현저히 떨어질것이다.》라고 썼다.

오늘 그것이 현실로 되고있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세력이 세계의 《제왕》으로 행세하던 지난날을 잊지 못해하며 꿈틀거리는 패권주의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무진 애를 쓰지만 그것은 헛된 시도로 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에게는 세계를 거머쥘 힘이나 방책이 없으며 자체내부의 심화되는 위기를 극복할만 한 뾰족한 처방도 없다. 제국주의는 자기 시대를 다 산 낡은 세력이며 력사의 퇴물이다.

제국주의세력은 그 무슨 《정의》의 탈을 쓰고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말살하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도 통하지 않고있다.

국제사회에서의 정의는 매개 나라들의 존엄과 자주권이 존중되고 그 나라들의 요구와 리익이 공정하게 보장되는데 있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세력은 지배와 예속, 침략과 략탈을 반대하여 떨쳐나선 나라들에 《평화파괴자》, 《도발자》 등의 감투를 뒤집어씌우면서 그 나라들의 자주적권리를 빼앗아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있다.

최근년간 국제무대에서는 제국주의세력에 의해 여러 나라들의 존엄과 자주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비극적인 사태들이 일어났다. 다른 나라들의 존엄과 자주권을 무참히 짓밟으면서 《정의》를 부르짖는것은 제국주의자들과 같이 파렴치하고 날강도적인 세력만이 할수 있는짓이다.

그러나 현실은 부정의가 정의를 억누를수 없고 판을 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나라를 비롯한 많은 자주적인 나라들은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투쟁하고있으며 반미대결전에서 커다란 승리를 거두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선군의 총대로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고있으며 자주적권리를 당당히 행사하고있다.

우리 나라는 세계무대에서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수 없는 당당한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존엄떨치고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빼앗아보려고 미쳐날뛰지만 우리는 그에 끄떡도 하지 않고있으며 자기 할바를 다하고있다.

세계 반제자주적인 나라들, 평화애호적인 인민들은 자주와 정의를 위해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으며 굳은 련대성을 보내고있다.

지배와 예속, 침략과 략탈을 일삼으면서 작고 약한 나라들을 저들의 손탁에 넣고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획책하는 제국주의자들에게는 절대로 정의가 있을수 없다.

우리의 실천적투쟁경험은 선군정치, 병진로선이야말로 자주와 정의를 수호하는 만능의 보검이며 승리의 열쇠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위대한 선군정치, 병진로선이 있기에 우리는 제국주의의 반공화국광풍이 세차게 몰아치고 국제정세가 복잡하게 변하는 속에서도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억세게 고수하고 전진시키고있으며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과의 격렬한 대결전에서 승리만을 안아오고있다.

오늘 자주와 정의를 위해 투쟁해나가는 우리의 투쟁대오앞에는 자주의 위대한 체현자, 정의의 견결한 수호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신다.

그이께서 계시는 한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며 우리의 앞날은 휘황찬란하다.

세계 수많은 나라들도 자주와 정의를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가고있다.

제국주의에 비한 자주력량의 결정적우세에 의거한 자주적이고 정의로운 새 세계구조가 형성될 날은 반드시 올것이다.

리 경 수

조선통일의 구성

국 제 사 회 계 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조국통일사상을 계승하시여 전체 조선인민을 거족적인 통일투쟁에로 현명하게 령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국제사회계는 열렬히 칭송하고있다.

쓰르비아의 새 유고슬라비아공산당 총비서는 김정은각하께서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유훈대로 나라의 통일위업실현에로 조선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신다, 그이께서는 신년사에서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며 북과 남이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갈데 대해 강조하시고 전체 조선인민족이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시였다고 말하였다.

로씨야신문 《나쉬 돔-쏘치》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선대수령들의 위업을 받들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고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조선통일의 구성이시다.

그이께서 계시여 가까운 앞날에 세계는 강성번영하는 통일된 조선을 보게 될것이다.

인도네시아전국운수로조련맹 위원장은 존경하는 김정은원수각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방안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7.4공동성명과 력사적인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성실히 리행하여 평화와 통일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의지와 노력에 련대성을 보낸다고 말하였다.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련합은 다음과 같이 성명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신년사에서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끊어진 민족적뉴대와 혈맥을 잇고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올데 대하여 호소하신것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의 주체사상신봉자들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의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해 천명하신 방안들을 전적으로 지지찬동하며 조선인민이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리라는것을 굳게 확신한다.

오스트리아원에 있는 김정일주체사상연구청년소조성원들은 일치하게 김정은동지께서 북남관계개선을 위하여 내놓으신 방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면서 남조선당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책동들을 중지할것과 미국이 남조선에 주둔시킨 저들의 군대를 즉시 철수하며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가로막지 말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민주꽁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인민이 나라의 분렬을 종식시킬 날은 올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심으로 하여 조선은 통일된 나라로 될것이며 자기의 강대성을 세계만방에 떨칠것이다.

인민사랑의 정치

영국단체 인터네트에 특집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가 최근 인터네트홈페지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사진문헌을 모시고 그이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글을 올렸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으시는 정열적이고 강의한 령도자》라는 제목의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늘 모든 일군들이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일할데 대하여 강조하신다. 사회주의가 좌절되기 전 동유럽나라들에서는 세도와 관료주의가 만연되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은 이것을 반사회주의선전에 리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에게 이 세상 행복을 다 안겨주시려 모든것을 바치신다. 그이께서는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제일로 여기시며 언제나 그들이 일하는 공장과 농장들을 찾고 또 찾으신다. 해당 단위에 도착하시면 현실을 깊이 료해하시고 문제점들과 그 해결방도들을 즉석에서 밝혀주신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의 당과 국가, 군대의 사업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신다.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시며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치신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의 조선식사회주의는 언제나 백승만을 떨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인민적이며 선진적인 조선의 교육제도

세네갈신문, 방송이 보도

세네갈신문, 방송이 6월 16일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를 찬양하였다.

신문 《러 뽀뿔래르》는 《조선의 의무교육의 특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고있다.

조선의 의무교육은 교육사업에 필요한 모든것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하는 철저한 무료교육에 기초하고있다.

학생들의 실험실습은 물론 과외활동, 답사와 견학, 야영생활을 위한 비용까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하고있으며 교과서와 참고서, 학용품, 학생들의 교복도 국가에서 보장해주고있다.

초등 및 중등교육은 물론 고등교육까지 무료이다.

소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수많은 학생들을 돈 한푼 받지 않고 공부시킨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등대섬의 한두명 아이들의 개학날이 늦어지는것이 걱정되여 직승기가 뜨고 산골의 몇몇 학생들의 등교를 보장하기 위해 통학렬차나 통학뻐스가 운영되고있는것이 바로 조선의 현실이다.

학교교육뿐아니라 사회교육,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 등 온갖 형태의 교육이 모두 국가의 부담으로 진행되고있다.

시대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발전하며 가장 높은 수준의 가장 합리적인 교육방법을 지향해나가고있는데 조선의 의무교육의 특징이 있다.

조선에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을 발포하고 이를 훌륭히 실행해나가고있다.

신문은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은 이미 조선에서 실시되여온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제의 심화발전이며 중등일반교육체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이라고 하면서 우리 나라의 교육체계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고 이처럼 가장 인민적이며 선진적인 교육제도에 기초하여 조선은 지금 사회주의강성국가, 문명국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라지오방송도 같은 내용을 전하였다.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련대성행사 진행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남아프리카, 말레이시아에서 련대성집회와 사진전시회가 6월 21일과 25일에 진행되였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남아프리카공산당 음푸말랑가주위원회 비서인 남아프리카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영웅적조선인민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미제를 타승한 력사적인 날에 즈음하여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께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린다.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미제가 도발한 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신심을 안겨주고 그들의 자주, 독립을 위한 투쟁을 크게 고무하였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지난날 조선전쟁의 패배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적대행위와 침략전쟁연습소동으로 북남관계의 전진을 가로막고 정세를 국도로 긴장시키고있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말레이시아전국은행로조 부총서기는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보낸다, 우리는 조선반도가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민족자체의 힘에 의하여 하루빨리 통일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공 동 성 명 발 표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스위스조선위원회와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가 6월 26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가 성명을 통하여 제2의 조선침략전쟁을 도발하기 위하여 미쳐날뛰는 미국을 준렬히 단죄한데 대하여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해마다 6월 25일은 미제가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범죄를 폭로규탄하는 날이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략탈적이고 야만적인 미제를 종국적으로 타승할 열의에 충만되여있다. 미국은 항복의 흰기를 들고 조선의 군대와 인민앞에 무릎을 꿇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적극 지지한다.

미국은 조선에서 손을 떼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승리할것이다.

배격받는 미국의 패권적야망

△ 체스꼬대통령 밀로슈 제만이 최근 한 회견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반마약》작전에 거액의 돈을 퍼부었지만 마약생산량은 50배나 늘어났으며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는 구실밑에 이 나라를 침공하였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까밝혔다. 특히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자기의 정치체제를 강요하는것은 무의미한짓이라고 하면서 그는 그것이 오히려 그 나라들을 망쳐놓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단죄하였다. 그는 또한 국제테로조직인 《이슬람교국가》(IS)가 국제사회의 가장 큰 위협으로 되고있으며 이 테로그루빠는 바로 미국이 중동나라들에 개입한 결과물이라고 못박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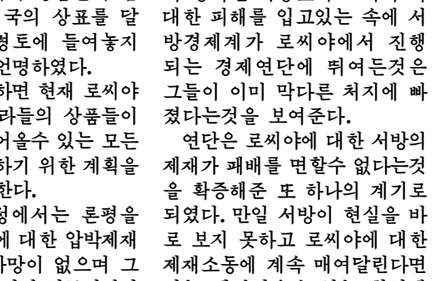
△ 이란민방위위원회 위원장이 6월 27일 한 연단에서 지역에 대한 새로운 전쟁정책에 매여달리고있는 미국을 규탄하였다. 그는 지금 미국이 중동지역에서 일어나고있는 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대리전쟁을 벌리고있다고 까밝혔다. 새로운 전쟁정책실현에 미국은 아랍나라들을 끌어들이고있다고 그는 폭로단죄하였다.

△ 까자흐스딴국회 상원 의장 까씸죠마르뜨 또까예브가 최근 자기 나라를 방문한 꾸바대표단과의 상봉석상에서 미국의 반꾸바봉쇄책동을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이 50여년전부터 꾸바에 대한 봉쇄정책에 계속 매여달리고있다고 하면서 이를 당장 걷어치울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자원보호조치

캄보쟈수상 훈 센이 1일 한 행사에서 수산자원을 보호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어부들이 알쏠이철에 물고기잡이를 하지 말며 비법적인 어구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양어를 발전시켜 나라의 수산자원을 늘여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1일 나라의 동북부지역에서는 100만마리이상의 새끼물고기를 저수지에 놓아주는 의식이 있었다.



브라질에서 커피나무재배

자연피해

꼬스따리까에서 6월 26일 무더기비가 내려 큰물피해가 났다. 큰물로 살림집과 다리, 도로들이 못쓰게 되였으며 200여명이 긴급대피하였다.

이 나라 기상연구소가 밝힌데 의하면 6월 26일 저녁부터 27일 아침까지의 비내림량은 6월 한달동안에 내리던 비량의 80%와 맞먹는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한편 최근 라오스의 북부지역에서 큰물이 나 많은 살림집들과 집짐승들이 물에 떠내려가고 하부구조들이 혹심히 파괴되였다.

피해복구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신형무장장비개발책동

미국이 침략전쟁에 써먹을 신형무장장비개발책동에 발광적으로 매여달리고있다.

최근 UPI통신은 신형《버지니아》급 잠수함이 선박건조업체인 뉴포트 뉴스 쉬프빌딩회사로부터 해군에 납입되였다고 전하였다. 잠수함은 8월초에 정식 취역하게 된다고 한다.

오늘의 세계

동맹국의 염통에까지 빼먹는 미국

얼마전 비밀폭로를 전문으로 하는 웨브싸이트인 위킬릭스가 미국가안전보장국이 력대 프랑스 대통령들의 전화내용을 체계적으로 도청하였다는 놀라운 사실을 공개하였다. 그에 의하면 도청행위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에 감행되였는데 이것을 통해 2008년 유럽금융위기와 관련한 당시 프랑스대통령 싸르꼬지의 립장자료, 2012년현 프랑스대통령 올랑드가 당시 자국수상을 만나 유로사용지대가 직면한 위기 특히 그리스가 유로사용지대에서 탈퇴하는 경우 초래되는 후과에 대해 토의한 자료 등을 적지 않게 뽑아냈다고 한다.

위킬릭스는 이번에 미국가안전보장국이 프랑스대통령은 물론 상들을 비롯한 고위인물들의 전화번호를 장악하고 항시적으로 도청행위를 해왔다는것도 폭로하였다.

지금까지 미국은 프랑스와의 공고한 동맹관계를 운운하며 살점이라도 떼여줄것처럼 놀아댔다. 하지만 그것은 다 프랑스의 염통을 빼먹기 위한 한갖 기만에 불과한것이였다는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 여지없이 드러났다.

프랑스는 미국에 완전히 속히웠다.

위킬릭스의 폭로자료가 공개된 후 프랑스의 정계, 사회계는 미국의 파렴치한 도청행위가 《신의를 저버린 행위》, 《절대로 용납할수 없는 행위》라는 불만과 비난의 목소리로 끓어번졌다.

프랑스대통령 올랑드는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의 비렬한 정탐행위를 신랄히 규탄하였다.

성명은 미국가안전보장국이 프랑스의 현 대통령과 전 대통령들, 정부의 주요인물들을 대상으로 전화도청 및 감시행위를 감행한것은 나라의 안전과 리익을 해치는 용납할수 없는 해독행위라고 단죄하였다.

프랑스외무상은 자기 나라 주재 미국대사를 호출하여 미국가안전보장국이 감행한 정탐행위에 대해 설명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프랑스수상은 국회에서 도청행위의 후과에 대해 미국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현 집권당인 사회당은 《미국의 무차별적이고 체계적인 도청행위는 도저히 참을수 없는 일이다.》고 강하게 비난하였다.

프랑스정부 대변인도 《프랑스는 절대로 이를 용납할수 없으며 자기의 안전과 관련한 문제에서 비정상적인 행위들을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대중보도수단들도 자기 나라의 고위급인물들에 대한 미국가안전보장국의 항시적인 전화도청행위들을 앞을 다투어 보도하면서 미국의 추행을 규탄하였다.

일이 심상치 않게 번져지자 바빠맞은 미국은 프랑스의 불만을 눅잦히기 위해 구차스러운 변명을 늘어놓고있다.

미국가안전보장국 대변인이라는자가 나서서 미국은 안전문제가 제기되지만 않으면 해외에서 감시를 하지 않는다느니, 현 대통령의 전화내용을 도청하지 않는다느니 뭐니 하고 발뺌을 하려 하였다. 그러면서도 지난 시기 이전 프랑스대통령들에 대한 도청행위를 감행한데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철면피하기 짝이 없다.

이번 사건을 놓고 앞으로 일이 어떻게 번져지겠는가는 두고보아야 할 일이지만 프랑스-미국관계가 복잡해질것이라는것이 정세분석가들의 한결같은 평이다.

문제는 다른 나라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도청행위가 처음이 아니라는것이다.

몇해전 도이췰란드잡지 《슈피겔》이 미국에 의해 메히꼬의 전직 및 현직대통령들의 전자우편이 감시당하였으며 도이췰란드수상의 휴대전화가 도청당하였다는 사실을 전한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사건발생후 도이췰란드수상은 미국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정보기관의 전화도청행위는 량국간의 신뢰를 심각하게 파괴하는것으로서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다는 립장을 명백히 밝혔다. 이로 하여 도이췰란드와 미국사이의 관계가 팽팽해지게 되였다. 그때에도 미국은 과거 도청여부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은채 현재 도이췰란드수상의 휴대전화를 엿듣지 않고있으며 앞으로도 도청하지 않겠다는 점을 약속한다고 하면서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꾀하였다. 그런데 메히꼬와 도이췰란드에 대한 전화도청문제가 가셔지기도 전에 영국신문 《가디언》이 미국가안전보장국에서 35명의 외국국가수반들의 전화를 도청하였다는 사실을 또다시 보도하였다. 실로 미국의 도청대상에는 한계가 없었다.

사람들은 지난 력사적사실과 이번에 또다시 드러난 미국가안전보장국의 도청사건을 통해서 미국의 진면모를 똑똑히 보고있다. 그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들의 리속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동맹국의 리익까지도 서슴없이 침해하는 불망나니국가이라는것이다.

과연 이러한 미국에 진실한 벗이 있겠는가.

세계는 미국에 침을 뱉고있다.

림 원

로씨야의 강경대응, 궁지에 몰린 서방

로씨야대 서방의 대결형세가 역전되고있다.

로씨야에서는 일시적으로 조성되였던 경제위기가 극복되고 전반적인 경제분야가 회복단계에 들어섰다. 무역균형이 보장되고 비원료수출, 가공제품수출이 증대되였으며 많은 나라들과의 경제협조가 보다 활성화되고있다. 치즈와 빠다를 비롯하여 유럽나라들로부터 수입하던 많은 상품들을 자체로 생산하고있다.

서방의 제재에 대처하여 동쪽에로의 방향전환을 한 결과 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들과의 동반자관계가 강화되였으며 유라시아경제동맹, 브릭스, 상해협조기구 등 지역기구들과의 협력도 적극 추진되고있다.

여론이 평하듯이 서방의 제재는 로씨야를 약화시킨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유럽에 치중하였던 무역구조를 다각화하고 경제위기극복능력을 높일수 있게 해주었다. 반면에 서방이 대로씨야경제제재조치로 강한 역풍을 맞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대로씨야경제제재로 인해 유럽동맹이 1 000억€의 손실을 입고 20만개의 일자리를 잃었다고 한다. 특히 로씨야의 농산물수입금지조치로 하여 거의 모든 유럽나라들이 커다란 경제적손실을 보았다.

사실들은 로씨야를 고립약화시키기 위한 불순한 정치적동기로부터 출발한 서방의 경제제재가 더는 맥을 출수 없게 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어리석은 서방나라들은 대로씨야제재가 저들에게 정치, 경제적으로 심각한 역효과를 가져오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의 도수를 계속 높이고있다.

지난 6월 22일 유럽동맹은 로씨야에 대한 경제제재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로씨야의 주요국영은행들과 군수기업, 원유공업기업 등에 대한 제재가 계속되게 되였다. 여기에 미국이 그 무슨 경사라도 만난듯이 쌍수를 들고 환영해나서고있다.

속심은 명백하다. 그것은 강력한 국가건설을 지향하는 로씨야의 의기를 짓눌러버리고 국제무대에서 행사되고있는 그의 영향력을 약화시켜 저들의 지배주의손탁에 거머쥐자는것이다.

로씨야가 그에 만만치 않게 대응해나서고있다.

최근 뿌찐대통령이 지난해부터 실시해오던 대응제재조치를 1년 연장할데 대한 정령에 수표하고 수상 메드베제브도 서방에 대한 대응제재조치와 관련한 정부결정에 수표하였다. 유럽동맹이 대로씨야경제제재를 6개월 연장하기로 한데 대한 반타격이였다.

이와 관련하여 로씨야대통령공보관은 《우리는 호상성의 원칙에 따라 제재에 대응하는것이 우리의 기본립장이라는데 대해 한두번만 강조하지 않았다. 로씨야는 주동적으로 행동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재기한이 연장되는 조건에서 우리는 호상성의 원칙에 따라 대응할것이다.》라고 밝혔다.

로씨야는 유럽나라들의 상품에 대한 봉쇄를 보다 강화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제재를 실시한 유럽나라들의 식료품들이 자국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있다.

로씨야농업상은 대로씨야제재를 적용한 나라 상품들이 암시장이든, 제3국의 상표를 달든 관계없이 령토에 들여놓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전해진데 의하면 현재 로씨야정부가 유럽나라들의 상품들이 자국시장에 들어올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중이라고 한다.

로씨야외무성에서는 론평을 발표하여 자국에 대한 압박제재전술은 전혀 가망이 없으며 그로 인하여 로씨야가 민족적리익과 주요문제들에 대한 원칙적립장을 양보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오산이라고 못박았다.

로씨야의 이러한 강경대응이 날이 갈수록 서방을 곤경에 몰아넣게 될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얼마전 로씨야의 싼크뜨-뻬쩨르부르그에서 열렸던 싼크뜨-뻬쩨르부르그국제경제연단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이 연단은 세계 많은 나라의 정계, 경제계, 언론계인사들이 모여앉아 새롭게 제기되는 경제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도를 론의하고 지속적인 경제장성전략을 모색하는 마당이다. 여기서 로씨야는 많은 나라들과 협력문제들을 진지하게 론의하였다.

특히 연단에 서방나라들의 경제회사들까지 너도나도 참가하여 주목을 끌었다. 로씨야의 강력한 대응조치로 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는 속에 서방경제계가 로씨야에서 진행되는 경제연단에 뛰여든것은 그들이 이미 막다른 처지에 빠졌다는것을 보여준다.

연단은 로씨야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패배를 면할수 없다는것을 확증해준 또 하나의 계기로 되였다. 만일 서방이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로씨야에 대한 제재소동에 계속 매여달린다면 더는 헤여나올수 없는 함정에 빠져들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 철 혁

ㄱ-511050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